“A STUDY ON BIBLICAL MINISTRY AND PREACHING”

-ANALYZING WHAT THE CHURCH HAS LOST IN THE CURRENT SITUATION OF COVID-19-

A THEIS-PROJECT

SUBNITTED TO THE FACULTY OF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REQUIREMENTS FOR THE DEGREE

DOCTOR OF MINISTRY

BY

DAEKYUNG LEE

MAY 2022

-목차-

표목차

감사의 글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께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차미영과
자녀인 이한빈,주빈,의빈에게 감사합니다.

또한 귀한 가르침을 주신 교수님께 감사합니다.

공부한 것처럼 목회하길 소망합니다.

Abstract

"A study on Biblical Ministry and Preaching"

- Analyzing what the church has lost in the current situation of COVID-19-

The church must overcome the darkness of Catholicism and inherit the spirit of reformation based on the truth shown by the Reformers. The ministry and sermons of the modern age are focused on growth and delivery. As a result, the essence of the Bible text is weakened and personal sanctifications are unachieved, resulting in a crisis of ministry and sermons.

This thesis, based on the Reformed biblical theology of "Back to the Bible", examines how pastors today can biblically evaluate the wave of changes, post-covid 19, and strengthen the appropriate methodology of biblical ministry.

“성경적 목회와 설교에 대한 고찰”

-코로나19의 현상속에서 교회가 잃어버린 것들을 분석하며-

“A study on Biblical Ministry and Preaching”

- Analyzing what the church has lost

in the current situation of COVID-19-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동기와 목적

교회는 카톡릭의 어둠을 뚫고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진리에 근거한 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한다. 이것은 성경 본질을 세운 종교개혁의 근간인 5 Solas(Sola scriptura: “Scripture alone”, Sola fide: “faith alone”, Sola gratia: “grace alone”, Solo Christo: “Christ alone”, Soli Deo gloria: “to the glory of God alone”)이다. 그러나 현대시대의 목회와 설교는 성장과 전달에 치중하여, 성경본문의 본질이 약화되어지고 인격적 성화를 이루지 못하는 결과들로 목회와 설교의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첫째로는, 마음에 감동 뿐 아니라 머릿속에는 자극을 주지 않는 설교들은 결과적으로 지식 없는 열정을 양산해 낸다고 조엘 비키 (Joel R.Beeke, 1952-) 는 지적한다.[1] 이러한 관점에서 조나단 에드워드 (Jonathan Edwards, 1703-1758)의 견해를 기억해야 한다. 그는 ‘열정’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말한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책 “부흥에 관한 생각들(Some

---

[1] Joel R, bekee,『설교에 대하여』, 송동민 옮김 (서울: 복 있는 사람, 2018), 33.

Thoughts Concerning the Revival)"에서 '회중에게 필요한 일은 그들의 머릿속에 지식을 심어 주는 것과 함께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전해주는데 있다. 그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이러한 감동을 깊이 전해주는 설교다'[2] 라고 하였다.

또한 성경적이지 못한 설교로 인해 설교속에 복음 없는 윤리적 성격을 갖기도 하고, 구체적 적용이 없이 Open ending으로 마무리되어 성도 각자의 자의적해석과 적용으로 교회안에서의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것은 성경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게 한다. 필라델피아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본인이 성경해석학을 공부할 때 신약과 조직 신학을 가르켰던 번 셰리던 포이트레스(Vern Sheridan Poythress) 교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므로 성경적 주해, 신학, 해석이 명확하게 되어 전해져야 하며 그 적용점도 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3] 그 이유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는 함의가 있기에 우리가 올바르게 알고 실행해야 함을 강조한다.[4] 포이트레스 교수의 말을 인용하여 정리한다면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고 구체

---

[2] Jonathan Edwards, *Some Thoughts Concerning the Revival,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 vol. 4, T Heaven, The Great Awakening* (New Heaven, CT:Yale University Press, 1972), 4:387-388.

[3] 번 포이트레스『성경해석학 강의안』(PA,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2022), 3.

[4] 번 셰리던 포이트레스(Vern Sheridan Poythress, 1946년 ~)는 미국의 칼빈주의 철학자이며 신학자이며, 신약신학 학자이다.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에서 수학을 전공하였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적인 적용이 없이 설교하는 것은 참된 설교라 할 수 없고 성경적 설교라 할 수 없다.

마틴 로이드 존스(Martin Looyd Jones, 1899-1981)목사는 참된 설교를 하지 않는 성경적이지 못한 설교를 하는 자들에 대해 거짓된 강단꾼들(pulpiteers)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5] 이러한 설교들로 참된 회심이 빠진 연설이 되어가고 있다. 교회는 언제나 정직한 복음과 참된 진리를 사람들에게 들려주어야 하는 것이다.[6]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것을 하나님의 초자연적 아름다움을 인식하고 정동 할 줄 아는 감각이라고 하였다. "중생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초자연적인 감각이 있는데 말하자면 그것은 신적이고 영적인 취향으로 그 본질 전체에 있어서 앞선 종류의 지성의 감각 중 어느 것 과도 다른 것이며 영적이고 신적인 일들에 있어서 자연인들에 의해 인식되는 어떤 것과는 전적으로 다른 이런 마음의 새로운 감각의 행사로 참된 성도에 의해 인신 되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꿀의 달콤한 맛이 꿀을 보거나 느끼는 것으로써 꿀에 대해 인

박사학위(Ph.D., 1970)를 받은 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M.Div., Th.M. 1974)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M. Litt. 1977)에서 공부하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텔렌보스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Th.D., 1981).

[5] Martin Lloyed-Jones, *Preaching and Preachers* (Grand Rapids, MI: Zondernvan, 1971), 13.

[6] 김남준,『그리스도인이 빛으로 산다는 것』(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2), 46.

간이 갖는 개념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말하고 있는 이것은 거룩함의 아름다움이다."[7] 진리의 빛을 환하게 빛추어주는 성경적 설교는 성도로 하여금 회심을 경험하게 하고 변화를 이끌어준다. 오늘날 설교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아름다움이 빠진 것은 매우 슬픈 일이다.

더불어 급격하게 사회가 변화하고 있다. 특별히 2019년 12월부터 시작된 Covid 19으로 인한 펜데믹 상황으로 인해 비대면 예배가 진행되면서 예배에 집중 못하는 상황 속에서 더더욱 설교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의 핵심을 놓치기 쉬운 시대에 직면해 있다. 이 모든 것은 교회를 위협하는 요소들이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교회의 운영과 더불어 성경적 목회와 설교의 위기가 도래하고 있다. 하워드 A. 스나이더(Howard A. Snyder, 1940-)는 교회에 대해 이렇게 제안한다. 첫째 성경에 확고한 기초를 두어야 한다. 둘째 성경에 증언된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8] 이러한 설명으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다시금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강단이 회복되어야 할 것이고 이것과 함께 급변하게 변화하는 사회에 바르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

[7] Jonathan Edwards, *Religious Affection,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2, ed. By perry Miller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6), 260.

[8] Howard A. Snyder,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 이철민, 이승학 옮김 (서울: 두란노, 1999), 24.

이제 교회는 변화에 맞는 지도력, 교회구성, 목회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9] 앞으로 진행할 논문에서 내용을 다루겠지만 오늘날 교회는 세상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유들을 모두 나열하기 어렵지만 본 연구자가 인식하는 이유는 믿음의 선배들이 지켜온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잃어버리고 교회성장의 목표속에서 아주 많은 부분에서 세속화되고 있기 때문임을 보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성경적이지 못한 목회와 설교로 인해 많은 수의 기독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또한 Covid 19으로 인한 비대면의 상황에서 나타나는 예배의 변화도 보게 된다.

해든 로빈슨(Haddon W. Robinson, 1931- 2017)은 "설교자가 성경을 떠나서 이야기할 그는 스스로의 권위를 포기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10]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갖고 앞으로 가져올 변화의 거센 물결 속에서 목회자들이 어떻게 그 변화의 물결을 바라보고 그러한 변화속에서 성경적 목회와 설교의 방향에 관심을 두고 하나씩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작금에 만나는 비대면적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성경속, 역사속 목회와 설교의 방법론을 살펴본 후 이 시대에서 목회자가 나아가야 하는 성경적 목회와 설교에 대한 바른 이해를 높이고 적용하는 실례로 설교의

---

[9] 김연택,『건강한 교회와 예배 』(서울: 도서출판 프리셉트, 2000), 11.

[10] Haddon W. Robins,『강해설교』, 박영호 옮김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99), 21.

방향성-다시 성경으로(5 Solas)-을 제시하며 논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 범위 및 목적

본 연구 논문에서는 “다시 성경으로”라는 개혁주의 성경신학에 근거하여 이러한 문제 인식을 갖고, 작금의 시대인 2020년 만나고 진행하고 있는 Covid19과 변화의 거센 물결 속에 있는 목회자들이 어떻게 그 변화의 물결을 성경신학적으로 평가하고 그러한 변화속에서도 설교자이면서 목회자로써 성경적 정체성을 잃지 않고 변화를 대처하는 올바른 목회방법-성경적 목회와 설교-를 강화할 수 방법에 관심을 두고 세밀하게 살펴 대안들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먼저 서론 부분에서는 본 논문의 목적과 연구방법을 제시하며 목회자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간략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본론 첫 부분에서는 목회에 대한 간략한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목회의 본질은 무엇이며 어떻게 목회가 변천되어져 왔는지에 대해 구약과 신약 그리고 종교개혁시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론 둘째 부분에서는 목회의 위기상황들을 작금의 시대에 만난 질병(Covid19)과

변화를 분석하며 다루려 한다. Post Corona에 작금의 교회들이 만나는 위기를 분석해 보고, 그러한 상황에서 성경적 목회와 설교의 방향성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들은 설교자가 만나는 위기를 조명해보며 성경적 설교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이해하게 될 것이다.

본론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목회적 대응을 논한 후 본 논문의 중심 주제인 “다시 성경으로” 이유를 찾고 종교개혁시대의 핵심이었던 5 Solas를 정리하고 이것들을 사용하는 바른 성경적 목회와 설교를 제안하고자 한다.

결론에서는 간략한 요약과 함께 본 연구논문을 준비하면서 공감하고 느끼는 바를 간략하게 기술함으로 본 연구 논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참고자료로는 성경과 각종 주석 미래학 분야의 단행본과 논문 정기간행물 그리고 현대시대의 설교와 목회의 흐름에 대한 리서치를 하고자 한다. 더불어 Covid 19에 나타난 교회상황을 분석하고 대처하고자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생각들을 기초로 성경적 설교와 목회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 논문을 전개하고자 한다.

제 2 장

성경적 목회와 설교의 본질

성경적 목회와 설교라 함은 예수님 닮은 전인격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며, 하나님 영광을 위한 가치관을 변화를 이끌어야 하며, 거룩한 삶의 생활의 변화를 이끌어주어야 한다. 백석 신학대학원 원장이신 류호준 교수는 목사는 모두가 설교자이기 때문에 '설교자로서의 목회자'라는 말을 종종 사용한다. 류교수의 말을 빌리자면' 목회자가 목회의 일을 감당하면서 일차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위탁받은 사명은 '말씀의 선포자'이다. 개혁교회 전통에 따르면 목사로서 안수를 받는 다는 것은 '말씀과 성례의 사역자'(minister of the Word and sacraments)로서 안수를 받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말씀의 선포자'(proclaimer of the Word)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영예이고 명예이다.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 담임인 류응렬 목사는 '목사는 설교자로서의 목회자임을 명심하고 우리가 받은 그 사명은 개인의 경험과 능력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늘 성경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이 성경적 목회와 설교의 핵심이며 바로 본 논문에서 적시하고자 하는 방향이다.

성경적 목회와 설교란 무엇인가? 이것은 성경적 설교를 중심으로 사역하는 것을 목회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성경적 목회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목회이다. 이것을 루이스 벌코프(Louis Berkhof, 1873- 1957)는 성경이 말하는 제도라고 하였다. 그는 다섯가지를 언급하고 있다.

(1)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며 교회안의 모든 권위의 원천이시다.

(2)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권위를 그의 왕적인 말씀을 통하여 행사하신다.

(3)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권세를 부여해 주셨다

(4) 그리스도께서는 이 권세의 구체적인 수행을 대표적 기관들을 통해 하신다.

(5) 교회의 권세는 기본적으로 개체교회의 치리 기관안에 있다.[11]

이 근본원리를 가리고 교회의 왕 되신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서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온 교회의 회중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끔 가르치고, 인도하고 안내하는 역할이 목회이다.[12]

---

[11] Louis Berkhof, *Systematic Theology*, (U.K: Banner of Truth Trust, 2020), 581.

[12] 이승구,『21세기 개혁신앙의 방향 』 (서울: SFC, 2012), 159.

목회라는 말은 헬라어 '포멘(Pomen)'에서 나온 말로써 '양때를 돌본다'는 의미를 가진 낱말이다. 이 말이 18세기 이후에 목회라는 말을 쓸 때 '포이메니스(Poimeniscs)라는 말로 나타나게 되었다.[13] 목회란 성서적인 어원에서 볼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목자라고 한 것과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목자라고 하신 것에서 설명이 되어진다. 곧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성립되므로 목양이라고도 한다. 즉 목자는 자신의 양을 알고 그 양의 이름을 부르고 밖으로 인도하며 놓아주고 양들보다 앞서가며 양들을 위해 생명을 버림으로 양에게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에드워드 투루라이젠(Edurd Thurneysen)은 목회를 정의할 때 "영혼을 돌보는 일"이라고 하였다[14]. 인간의 영혼이 잘 될 수 있게 보살피는 것이 바로 목회인 것이다. 존 스토트 목사는 목회는 목자가 양을 치는 것 같이 영혼의 목자인 목사가 교회에게 양과 같은 신자들을 진리로 가르치며 기르는 것이라고 하였다.[15]

이와 같이 목회 일을 하는 직분을 우리는 목사라고 한다. 하나님께서 이 직임을 위해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전하는 사명을 주셨다. 벌코프는

---

[13] 정성구,『실천신학개론』 (서울: 총신대 출판사, 1980), 88.

[14] Edurard Thurneysen,『목회학 원론』, 박근원 옮김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78), 17.

[15] John Stott,『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정옥배 옮김 (서울: 아가페출판사, 1986), 205.

엡4:11의 "목사와 교사"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두 종류의 다른 직임이 아니라, 목사는 교사의 기능을 지닌 한 종류의 직임(one class having two related functions)로 정의 하였다.[16] 다시 말해 목사는 가르치는 교사요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성언 운반자[17]라고 정의할 수 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므로 증인의 사역을 감당한 것처럼 목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것이 최대의 사명인 것이다. 이런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일은 복음을 선포(Preaching)하고, 가르치고(Teaching), 목양하고(Pastoring), 다스리는(Managing) 사역이다.[18] 사랑의 교회 故 옥한흠 목사의 말처럼 목회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인 양무리를 보살피는 것이다. 목회는 양떼를 떠나서는 할 수 없다.[19]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양들을 구원하여 돌보는 일이다. 즉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대해 성경을 통해 알려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유기적 통일성을 가지고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의 유기적 통일성은 "하

[16] 이승구『21세기 개혁신앙의 방향』, 163.

[17] 성언(聖言)운반자-신학교 1학년 구약강의 시간에 들은 설교자에 대해 표현한 개념으로 본인에게 가슴깊이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심어 주었다.

[18] 시워드 힐트너,『목회신학 원론』, 민경배 옮김 (서울: 대한기독서회, 1968), 19.

[19] 옥한흠,『이것이 목회의 본질이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4), 19.

나님의 점진적 자기 계시와 구속사의 진행"이라고 하는 신학적 목적에 대한 통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의 세계 곧 하나님의 세계를 계시한다.[20] 이것은 구원사역을 목적으로 한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란 하나님께서 도저히 자격 없는 자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로 자기의 백성을 삼으시며 친히 자신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사역은 구원역사 위에 자신께서 괄목할 만하고 강하게 응축시켜 나타내신 그 은혜의 사건들을 축으로 삼아 유기적으로 전개되고 발전되는 움직임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 은혜의 사건들이란 곧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신 사건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아담과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와 다윗의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세우셔서 자신의 백성 전체와 언약을 맺으신 사건들을 설명하고 그것들을 축으로 삼아 유기적 발전을 거듭하는 구원사역의 점진적 움직임을 해설하시며 그 움직임을 미리 보여 주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 사역이며 이 계시 사

[20] Mark Ellingsen, *The Integrity of Biblical Narrative: Story in Theology and Proclamation* (Minneapolis: Fortress,1990), 19.

역의 기록이 곧 성경말씀인 것이다.[21] 따라서 목회의 핵심적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달하여 하나님을 떠난 죄악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을 구원 얻게 하는 일이다.[22] 그러므로 목회의 본질은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진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하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는데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

한철하 박사는 목회의 본질을 정의하기를 교역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가르침으로서 교인들의 마음속에 신앙을 불러 일으키고 그 신앙을 증대케 하여 마침내 구원과 영원한 복락을 완전하게 마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23] 목회의 성경적 의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데 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임맡아 일하는 것이 성경적 설교이자 목회이고 이 일을 맡아 봉사하는 사람이 목사이다. 이러한 중차대(重且大)한 사명을 하는 것이 설교이다. 설교자를 부르셔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신 이 놀라운 은혜는 목회자에게 설교자에게 매우 큰 영광인 것이다. 이러한 사명을 성경적이고 정확하게 실행하기 위해 좀 더 세밀

---

[21] 김영철,『여호와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1』 (서울: 여수룬, 2000), 142.

[22] 백동섭,『새 목회학』 (서울: 성광문화사,1983), 23.

[23] 한철하,『신학과 신본주의』 (서울: 한국복음주의 신학회), 20.

하게 구약과 신약에서 목회와 설교를 보고자 한다.

제 1 절 구약에서의 목회와 설교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돌보시기 위해 목자[24]로서 자기 자신을 여러 차례 이야기한다. 즉 이스라엘 민족으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들을 돌보도록 하기 위하여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왕을 세우셨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적당한 인물들을 세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세운 민족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말씀을 선포했고(출19:3-6, 렘2:2, 겔6:1-3), 제사를 드리게 하였고(렘1:1-2, 삼상15:22-23, 말1:7-14),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였다(삼상13:11-13, 삼하12:7-11, 사1:1-18, 학1:3-11, 말3:7-19). 그 외에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일[25]등을 행하여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을 돌보게 하였다.

더불어 구약에서의 목회를 세 가지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바로 제사장, 선지

[24] 시편23:1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5] 신2:5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 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자, 왕의 개념이다. 제사장들은 온 회중을 대표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에 봉사했으며, 또한 선지자들은 백성의 죄를 책망하여 회개케 했고 마지막으로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의 개념으로 보게 된다.[26] 구약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선한 목자들인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27]

제 2 절 신약에서의 목회와 설교

신약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하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다. 이 사역을 통해 목회의 성경적 원리들을 찾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본질은 죄인된 자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신 일이다(요10:1-10).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 이러한 사역을 하시고자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마4:17) 말씀을 가르치시며(마4:23, 막1:21) 병자를 고치(마8:16, 막1:34)셨다. 이러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사역이 바로 신약시대의 목회의 본질이라 할 수 있다. 예수님은 선생님으로써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

[26] 백동섭,『새 목회학』 (서울: 성광문화사, 1981), 13.

[27] 박동현,『성경과 목회』 (서울: 한국성경학연구소, 1994), 22-23.

복음서에 보면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르켜 선생이라고 부른 곳이 많다(마22:16, 막4:38, 요20:16). 예수님 자신도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요13:13)고 하심으로서 자신이 선생님을 시인하셨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사역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음을 보게 된다. 또한 전파하는 사역으로 목회의 본질을 보여주셨다. 이것은 전도자의 모습이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택하여 세우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권세를 주시어 각 고을로 파송하기도 하셨다(마10:2-8).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부탁하셨다(막16:15, 마28:19-20).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그의 제자들은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며, 복음을 전하기에 힘을 썼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고치는 사역으로 목회를 보여주셨다. 다니는 곳곳마다 마음이 몸이 아픈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 주셨다. 이 모습속에서 우리는 성경적 목회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제 3 절 종교 개혁시대의 목회와 설교

종교개혁주의자들은 성경을 강조하는 목회를 하였다. 한국의 합신신학대학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이승구 교수의 "21세기 개혁신학의 방향"에서 종교개혁시대의 목회에 대해 이렇게 기술한다.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적인 목회와 신학을 하였다. '성경적'이라는 말은 일차적으로 모든 개신교도들에 의해서 강조된 "오직 성경(Sola Scripture)의 원리와 특히 개혁파 학자들에 의해서 강조된 "전체 성경(tota Scriptura)"의 원리에 충실하게 목회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회의 방법은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믿는 바와 삶의 문제에 대해 최종적 권위임을 강조하였다. 이점에 있어서는 모든 개신 교회의 신학이(그것이 개혁신학이든지, 루터파 신학이든지, 침례신학이든지, 성공회 신학이던지, 감리교 신학이든지, 후의 오순절 교회의 신학이든지를 막론하고) 공동의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만이 더 구체적으로 그 믿는 내용을 정화기 규정하는 일을 중요시하는 목회함에 있어서 이 "오직 성경의 원리"에 충실하게 하였고, 이 뿐 아니라 그것에 함의 된 것으로 "성경전체(tota Scirptura)"의 원리에 충실하게 목회하였다. [28]

[28] 이승구,『 21세기 개혁신학의 방향』, 150.

이러한 목회의 자세 '오직성경'만이 근거로 하여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믿음의 가치를 목회와 설교로 파수하였음을 보게 된다. 특별히 복음을 강조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자 힘썼다. 종교개혁자들은 '오직'이라는 단어를 강조하여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기를 소망하였다.

마틴 루터는 "죄 가운데 태어나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는 모두 우리의 모든 것과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저주 받아 영원한 진노와 지옥 외에는 획득한 것이 없으며, 이런 곤경에서 빠져 나갈 길도, 도움도 없으므로...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인간, 즉 예수 그리스도, 신인 (神人)이 우리를 대신해야 했고, 자신의 고통과 죽음을 통해 죗값을 치르고 만족을 이해하셨다"[29] 라고 설교하며 예수님을 전하였다.

종교개혁자들의 심장을 이어 개혁을 외쳤던 청교도신학자인 리차드 백스터 Richard Baxter, 1615- 1691)의 말을 들어보면 이들이 목회에서 가진 예수님의 심장을 경험할 수 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이 효과적인 사역을 전하면서도 정작 여러분 자신은 그 사역에 이방인이 된 것은 아닌지, 여러분은 구세주가 필요하다고 세상에 선포하면서도 정작 여러분의 마음은 그분을 무시하고 그분에 대한 관심과 그분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

[29] James Montgomery Boice,『개혁주의 서론』, 김수미 옮김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0), 125.

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멸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면서 정작 여러분 자신은 멸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면서 정작 여러분 자신은 기아에 허덕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스스로 주의하십시오"[30]

종교개혁자들은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것을 설교하고 목회하며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오직성경에서 찾아 전하고 목회하였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의 가르침에서 "올바른 가르침의 순서(ordo recte docendi)"에 각별한 관심을 가졌다.[31] 본 연구자의 논문은 이런 개혁주의 신학자의 가르침을 회복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

[30] Richard Baxter,『참된 목자』, 지상우 옮김 (서울: CH북스, 2008), 65.

[31] 한병수, "*칼빈의 신학적 구조*"『*조직신학논총*』, 41(2015), 69.

제 3 장

성경적 목회와 설교의 위기

우리는 오늘날 교회와 목회자들은 앞선 성경적 목회와 설교의 의미를 잊어버리는 위기를 맞고 있다. 현대시대의 목회와 설교는 성장과 전달에 치중하여, 본질이 약화되어지고 인격적 성화를 이루지 못하는 결과들로 목회와 설교의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 이것은 설교가 복음 없는 윤리적 성격을 갖기도 하고 구체적 적용이 없이 Open ending으로 이어지는 결과로 성도 각자의 자의적해석과 적용으로 교회안에서의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작금의 현상들을 성경적 목회와 설교의 관점에서 비 성경적 구조를 지적하고, 이러한 결과가 이루어지는 현대 시대의 목회 그리고 2019년부터 만난 코로나의 현상속에서 교회가 잃어버린 것들이 점점 많아지게 됨을 보게 되는데 목회와 설교의 위기에 주목하여 그 원인인 기독교 진리에 대한 이해 부족, 기독인의 정체성 혼란 그리고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의 상황들과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를 근거로 제시하고자 한다.

제 1 절 기독교 진리에 대한 이해 부족

비 기독인 뿐 아니라 기독인들까지도 기독교의 신앙이 비합리적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목회자들 중에도 온전하게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다. 2020년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 기도를 인도했던 목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신(god)들의 이름으로 기도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다양한 신앙의 이름으로 아멘)마쳤고, 미국 감리교 목사인 이매뉴얼 클리버(Emanuel Cleaver) 는 지난 2022년 1월 4일 하원 개회 기도에서 자신의 기도를 이렇게 마무리했다.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and by many different faiths. Amen, and awoman(우리의 유일신 하나님, 브라마, 여러 다른 이름, 다른 믿음으로 알려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에이멘(Amen) 그리고 에이우먼(A-woman))”이라는 기도들을 목도하고 있다.

이것은 왜 그럴까? 이런 사람들은 사실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혹 안다 하여도 성령님의 조명아래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닌 세상의 논리와 지식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다. 기독교의 진리를 잘 알 지 못하므로 아주 많은 수의 사람들이 종교다원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자들은 때론 교회를 독선이라고 비판한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의 주장을 정리해보자면 ① 모든 종교는 똑같이 타당하다. ② 종교간의 모순은 수용될 수 있다. ③ 그러므로 절대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 말한다. 그러나 이것을 틀린 말입니다. 가령 우리집이 2호에 있다고 가정해보고 친구들에게 집에 주소를 묻는 질문을 해보자.

필자의 집은 어디인가? 보기를 ① 1② 2 ③ 2-2④ 3로 제시되었다고 가정해보자.

정답은 무엇일까? 2번이다. 다른 번호들이 정답과 근사하지만, 정답은 아니다.

우리집이 2호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 독선인가? 이것은 독선이 아니라 fact이다.

성경은 진리인데 종교다원주의자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기독인들도 쉽게 진리안에 거하지 못하고 세상의 논리에 흔들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 지 못하고 온전히 전하지 못하는 목회와 설교에 있다.

로마서 12장1-2절[32]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헌신된 제자의 삶과 그 삶

---

[32]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을 사는 제자들이 실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 실천행동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해주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진리를 우리가 바로 인식하고,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하고 살 때 이전에는 죄를 짓는데 사용되어졌던 우리 몸이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몸으로 드려지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렇게 설교하지 못할 때 만나는 위기가 오늘날 우리가 만나는 목회와 설교의 위기가 되는 것이다.

이 위기가 오늘날 목회현장에 가득하여 하나님의 제자를 찾아보기 힘든 작금의 상황을 보게 된다.

제 2 절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의 위기

정체성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을 말한다. 기독인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한국에서 열린교회를 담임하는 김남준 목사는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참된 표지를 알게 된다고 말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5:14) 이

분별하도록 하라” (개역개정)

말씀은 ‘현재 직설법(indicative)’이다. 즉 앞으로 빛이 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혹은 열심히 노력하여 빛이 되라는 당부가 아니다. 이것은 ‘너희는 어두운 이 세상을 비추기 위해 하나님께서 여기에 두신 바로 그 빛이다’라는 직접적이고 현재적인 선언인 것이다.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빛이여야 함은 피할 수 없는 사명이며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의 힘써야 하는 일이다”[33]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재를 살아가는 빛이라는 것은 오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매우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다.

오늘날 빛 된 교회와 목회자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정체성을 잃고 빛을 잃어 가서 그 어둠에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있음을 보게 된다.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지금 세상은 교회를 보고 혼란해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에 교회를 매일 수 백만 마디의 말이 말해지고 기록되지만 실효를 거두는 것은 거의 없는 집단이라고 말한다. 또한 교회를 쓸모 없는 이야기 상점이라 말하며 교회는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하면서도 행동은 지나치게 적게 한다는 비평도 있다. 사람들은 교회가 좀 다른 곳이기를 기대했었다. 분명 교회라고 간판에 혹은 교회 건물에 쓰여 있지만 지금 우리의 교회는 세상과 다른 모습이 아닌 오히려 세상보다 더 큰 욕심과 이기심과 배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

---

[33] 김남준,『그리스도인이 빛으로 산다는 것』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2), 52.

해 '이것이 교회다'라고 보여주며 정체성의 혼란으로 위기를 갖고 있다.

딤후3:1-5절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느니라"라고 말세의 모습에 대해 말씀해준다. 이 말씀에 오늘날 교회와 목회자는 자유한지 질문해 보고 싶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위기는 오늘날 교회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지 못하는 설교자이자 목회자의 책임이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교회가 올바르게 설교하지 못하므로 죄에 대한 각성이 약해지면 다시 각성하는 일은 더 어려워진다"[34]라고 한 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제 3 절 Corona 19에 따른 비 대면 시대의 도래

1. Corona 19[35]에 대한 정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또는 신

---

[34]『그리스도인이 빛으로 산다는 것』, 53. Jonathan Edwards, "God Makes Men Sensible of Their Misery Before He Reveals His Mersy and Love" Sermon and discourse,1730-31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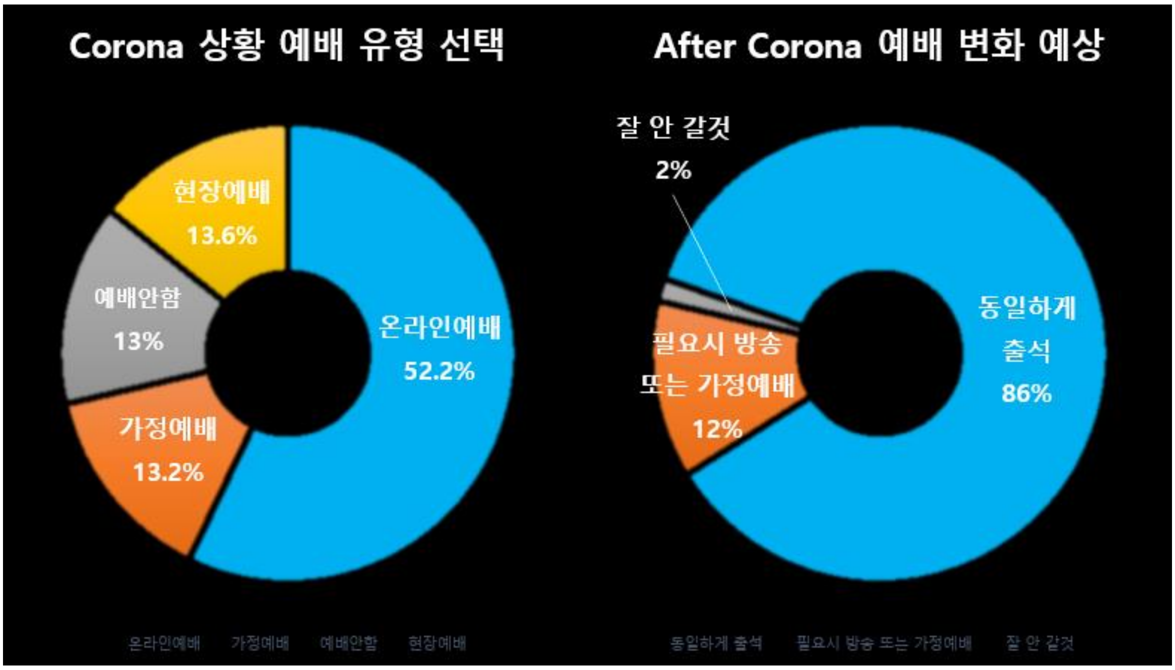
[35] https://ko.wikipedia.org/wiki

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문화어: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는 SARS-CoV-2가 일으키는 중증 호흡기 증후군이다. 2019년 12월에 첫 사례가 보고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퍼져 나가면서 유행병으로 자리잡았다. 이로 인해 사회 전반에서는 물리적 거리두기를 하였고, 교회 또한 비 대면 예배와 모임으로 약 2년 6개이상 전체 성도가 모이지 못하고 있다.

2. Corona 19으로 인한 한국 교회 예배 실태

코로나 19으로 인해 미국과 한국 교회들은 비 대면 예배를 하게 되었다. 한국기독교목 회자 협의회와 한국 기독교 언론 포럼등은 지앤 컴 리서치-목회데이터연구소에 의뢰해 2020년 7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개신교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한국교회 영향도 조사'를 실시했다.[36]

[36] There was a recent study conducted by Korean Pastors Association and Korean Christian Media Forum. The study consisted of survey of Protestant Christian adults from 7/2 – 7/6 regarding the effects of Covid 19 on the Korean chu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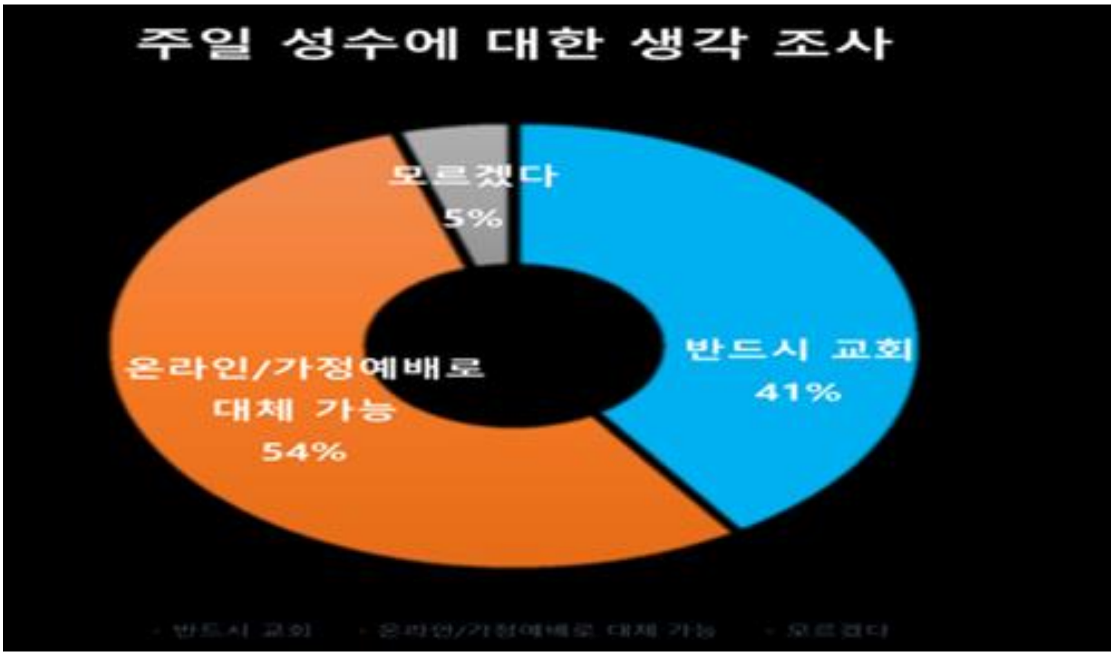


(표1)

위 도표를 보듯이 2020년 7월 11일 발표된 결과를 보면, 응답자 10명 중6명은 출석 교회 온라인예배를 했으며, 2명은 가정예배 그리고 2명은 코로나 이후 예배를 하지 않고 있다고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구체적 질문으로는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 '교회 예배에 대한 변화 예상'을 묻는 질문에는 '85.2%'가 '예전처럼 동일하게 교회 출석하여 예배를 드릴 것 같다'며 답했고, 반면 12.5%는 '필요한 경우 교회에 가지 않고 방송으로 예배 또는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1.6%는 '교회에 잘 안 가게 될 것 같다'고 반응했다.[37]

[37] According to the data collected, 60% of the responders attended online service, 20% held

주일성수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응답자의 40.7%는 "반드시 교회에 드려야 한다"고 했고, 54.6%는 '온라인 예배 또는 가정예배로도 대처할 수 있다"고 답했고, 모르겠다 답변은 4.7%였다.[38]



(표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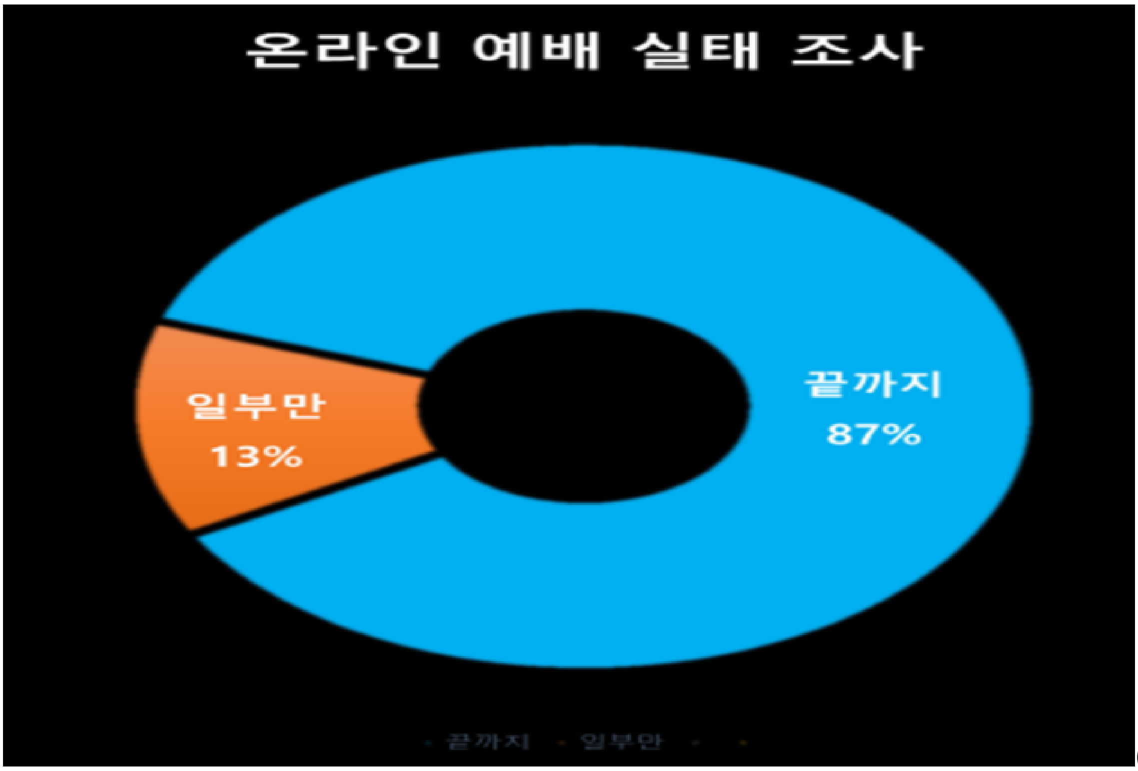
'온라인 예배 또는 방송 예배'를 드린 교인들의 예배 참여 실태를 파악하는 문항도 이번 설문조사에 포함됐다. '온라인 예배·방송 예배를 한다는 61%, 즉 10명중 6명만이

---

worship services with their families, and 20% did not attend any worship service. When asked how the church might change once the pandemic ends, 85.2% replied they would likely attend the church as they did prior to the pandemic. 12.5% replied they would use the online service or have a worship service with family when necessary. 1.6% replied they will likely not go to church. (표1 참조)

[38] The survey also asked how they felt about where they must worship on Sundays? 40.7% responded it must be at a church. 54.6% said it can be done online or can be substituted with family worship. 4.7% had no opinion.(표2)

온라인예배를 한다. 그 중에서 끝까지 시청했다'는 답변은 86.5%, '설교 등 일부만 시청했다'는 13.4%였다. 그리고 출석하는 교회의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는 교인은 63%에 그쳤다.[39]



(표3)

또한 예배 참여도에 관한 문항에서는 '교회 현장예배 때처럼 찬양과 기도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는 답변이 68.2%였으며, '그냥 가만히 시청하면서 드렸다'가 31.8%였다.[40] 이번 설문조사의 표본은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개신교인 지역별, 성

[39] Among those that attended online/live-stream services, 86.5% watched the entire service while 13.4% only watched part of the service. Only 63% of those who attended online services watched the service streaming from the church they normally attend.(표3)

별, 연령별 인구비례할당으로 추출했고. 표본오차는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 표집오차 ±3.1%P이라고 한다.[41]

3. Corona 19으로 교회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

지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시작된 비 대면 예배에서 현재 이 땅 성도들 예배의 모습과 신앙을 앞선 설문조사로 짐작하게 한다. 이것은 그동안 교회 목회와 설교의 전달이 온전해지지 않고 약화되었기에 성도의 신앙성장 위기의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점 잃고 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42]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은 찾으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

40 There were questions regarding the level of participation. 68.2% of online worshippers sang praises and prayed along as they normally would had they been physically present in the church building. The other 31.8% of online worshippers just watched as praises were sung and others prayed.

41 The sample population of this survey was based on the 2015 census to represent the general population according to the region, gender, and age. The margin of error was ±3.1%.

42 요한복음 4장23-24절 (개역개정)

한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43] 예수님을 통해 길을 잃었던 우리의 길이 교정되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므로 이것에 감사하고 또한 그 교정된 길에서 거하기 위해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이것이 예배의 이유이다. 그리고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은 '영과 진리'로 해야 한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44]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에 따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종이 주인에게 하 듯 마음을 다해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예배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이다. 이것이 진실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이

---

[43]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개역개정)

[44] 신명기 10:12절 (개역개정)

다.

정리하자면,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영적민감성을 말하는 것이고,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는 것임을 말한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예배를 한번 확인해본다면 비대면으로 인해 가정에서 예배할 때 예배의 집중력이 현장보다 약해진다는 것은 앞선 설문조사에서도 확인하였다.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 주님과 깊은 영적교제와 말씀의 실천으로 예배하는 자를 말하는데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에게는 '이 산이든 저 산이든'중요치 않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지적하시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중요함을 말씀한다. 그러나 오늘날 코로나 19으로 인해 현장예배를 오랫동안 하지 못하는 상황속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하는 교회들의 모습들을 본다. 이는 결과적으로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오지 못함을 보게 된다. 다음의 리서치는 이를 근거해준다. 미국 남 침례교 교단의 연구기관인 Lifeway Research의 조사를 보면, 코로나 19의 현상이 2022년 1월을 기준으로 본다면 3년이상 지속되고, 다행히 백신이 보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Lifeway Research(기독교연구단체)는 교회를 거부하는 어떤 트렌드를 명확하게 밝혀보고자 미국에서 이전에 교회에 다녔었던 성인들을 대상으로 "Why People Leave

and How to Help Them Return to the Church[45]"주제로 설문조사를 했다. 조사내용을 확인해 보면, "코로나 19동안 미국의 3억 인구 중 교회에 정기적으로 다니는 사람은 20%도 안 된다. 그리고 우리의 연구는 거의 790만 명의 사람들이 매년 교회를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숫자를 좀 더 줄이더라도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서 매주 1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떠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46]라고 말한다.

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는가? 이에 대해 4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다.

첫째는 생활 양상의 변화 (Change in life situation)이다. 이전에 교회에 다니던 신자들 중 3분의 1은 그들이 단순히 교회에 다니기엔 너무 바쁘다고 생각한다.

그들에게는 삶의 변화(종종 가족이나 가정에서의 필요)가 지역 교회에 다니는 것만큼 중요하거나 오히려 더 중요하다.

두번째는 교회에 대한 환멸과, 세번째는 사랑을 행하지 않는 교회라 말한다.

---

[45] https://churchleaders.com/outreach-missions/outreach-missions-articles/138855-coming-home-why-people-leave-the-church-and-how-to-bring-them-back.html

[46] Recently, LifeWay Research conducted a survey of formerly churched adults in America, hoping to uncover certain trends about the de-churched. The magnitude of the decline, however, is staggering. Of the 300 million people in the United States, fewer than 20% regularly attend church. And our research suggests that close to 7.9 million people may be leaving churches annually. Crunch the numbers, and you realize that our churches are probably seeing more than 150,000 people walk away each week!

목회자가 교회 내 불만에 기여하는 요소일 뿐만 아니라, 교회 사람들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던 교회를 떠난 사람들 중 45%는 교회 사람들이 판단적이고 위선적이라고 말했다.[47]

네번째는 비기독교인 (Not Christians)이다. 예배 참석자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실제 신앙인들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애당초 기독교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이유들로 매년 많은 수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이것은 목회와 설교의 위기의 이유들임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와 함께 코로나 19으로 인해 교회들은 1년이 넘는 시간동안 비 대면 예배를 했다. 이제는 주정부의 방역지침 많이 완화되어 대면예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아주 많은 수의 교회들에 (앞선 설문조사의 항목으로 교회를 이미 떠난 사람들이 아닌) 여전히 많은 성도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교회 신보인 아멘넷에서는 오늘날 코로나 19으로 만나는 교회의 현상에 대해 Woodstock City Church의 North Point Ministries 캠퍼스의 수석 목사인 개빈 아담스

[47] Not only is the pastor a contributing factor to discontentment within the church, the way the formerly churched perceived the people within the church also motivated their leaving. Of the formerly churched who expressed dissatisfaction with those in the church, 45% said the other members were judgmental and hypocritical.

(Gavin Adams)목사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하였다.

"오늘날 교회에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원인중의 하나는 "디지털 행동양식으로 바뀐 교회 소비자들!" 예배를 하는 방법의 선택지에 온라인이 포함되었다. 온라인 예배는 편안함을 제공한다. 이것이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이유이다. "

"또 하나는 '교회를 1년 동안 빠졌다. 하지만 내 삶은 더 나쁘지 않다' 그들, 그들의 자녀들, 그리고 그 뒤를 따를 세대는 건물 안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들은 파크, 호수, 공연장 그리고 집에서 커피와 여유로운 일요일 아침을 즐기고 있다."[48]

이 모든 현상들이 바로 오늘날 목회와 설교의 위기를 야기시키고 있다.

제 4 절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

과학기술의 발달로 온 지구가 한마을처럼 지금보다 더욱 가까워질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삶이 더욱 윤택해지므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으나 이런 변혁과정에서 인간은 더욱 점진적으로 비인간화 되고 더욱더 인간미를 잃어버리는 시대가

[48] 아멘넷, https://usaamen.net/bbs/board.php?bo_table=data&wr_id=11094

도래할 것이다. 미래의 인간들은 발달된 문명의 숲 속에 잃어버린 양이 되어 가고 있어 그 어느 때 보다도 교회와 목회자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한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대적 요청에 부합되는 참 목자로서의 인격과 자질을 갖춘 신실한 목회자를 찾을 것이다. 그러나 목회자가 성경적 목회와 설교를 하지 못하므로 점점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가 가리켜주는 것은 무엇인가?

근자에 유행하는 단어로 소위 6T에 대한 기술과학적인 언급이 있다. 인류의 미래를 주도할 것이라고 흔히 말하는 첨단 산업기술이다. 정리하면, 정보통신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 환경공학기술(ET), 우주항공기술(ST), 문화콘텐츠기술(CT)이다.[49] 특별히 IT산업[50]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의 미래는 변화의 파장은 짧은 기간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영향을 주고 있으면 교회 공동체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51] 이승구 교수는 그의 책에서 이러한 기술 정보사회의 특징을 분석하고 교회의 정확한

---

49 이승구,『21세기 개혁신학의 방향』, 482.
이승구 교수가 그의 책에서 인용한 이 글은 2004년 6월 17일 영락교회에서 한국 컴퓨터 주최"IT세대를 위한 교회 사역 세미나"에서 발제한 글이다.

50 "Information Society" is the term that is used to capture the increasing contemporary influenc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s). www. Isc.ie/about/society-mean.html

51 한상용,『미래쇼크』 (서울: 기독교 사상.2006), 39,

대응이 필요함을 적시하였다. 기술정보사회의 특징으로는 기술 집약성과 지식화 추구, 거리의 소멸, 국제적 상호 의존성과 상호 연계성 증가, 문화적 동조화, 각자의 독자적 문화 개발 노력으로 구분하였고 이러한 변화에 한국교회는 전적인 거부와 소극적 수용으로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52] 이러한 이유로 아주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정체성에 혼돈 또한 가지고 있으며 목회자들 또한 바른 성경적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여 목회와 설교-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점점 약화되는 현상을 보게 된다. 이러한 변화속에서 우리는 성경적 목회의 본질을 기억하여 오늘날의 급변하는 사회와 현실속에서 목회와 설교의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이승구 교수는 이러한 기술 정보사회에서 교회는 오히려 선교적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연구와 사회 정보기술(IT)사회화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교회의 목회적 책임 -성경적 자기 절제훈련과 기술정보에 대한 바른적용-을 다할 것을 주문한다.[53]

---

[52] 이승구,『21세기 개혁신학의 방향』, 486-500.

[53] 이승구,『21세기 개혁신학의 방향』, 504.

제 4 장

Post Corona 성경적 목회와 설교

앞선 Chapter에서 성경적 목회와 설교의 위기의 원인들을 살펴보았다. 그럼 더 이상 소망이 없는가? 그렇지 않다 여전히 교회는 소망이 있고 우리 목회자들이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목회하느냐에 달려있다.

본 논문의 이번 Chapter에서는 여러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경적 목회야 설교가 가능한 방법론을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설교자인 목회자가 가져야 하는 자세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제 1 절 Post Corona 성경적 설교자의 자세

1.선지자적 예견 -선견지명(先見之明)

'선견지명'이라는 것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미래를 보는 어떤 능력을 말한다.

오늘날 우리가 만나는 급변하는 사회와 코로나19은 목회자인 설교자들에게 선지자적 예견이 있는 영적인 '선견지명'으로 목회하고 설교해야 함을 기억해야 한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목회하며 성도들에게 설교해야 하

는지에 대해 사도 바울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이 가져야 하는 영적 선견지명이다. 고후5:7절에서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믿음을 강조한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후 4:18절을 보아야 한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 후서 5장7절과 병행구절인 4장 18절을 보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한다.

선지자적 예견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보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때 목회자이자 설교자인 우리는 영적인 면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아야 한다. 세상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바로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강조한다. 믿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보이거나 갖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믿음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된다.

성경을 보면 성경적 목회와 설교를 해야 하는 설교자들이 소유해야 할 믿음에 대해 여러 장면에서 가르침을 준다.

믿음으로 본토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온 아브람이 10년이 지나서 85세때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람을 불러내어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헤아려 보라고 한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54] 아브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그가 가진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성경 통해 우리가 보아야하는 것 또한 이 믿음이다.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 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기억해보자. 이 싸움은 처음부터 되지 않는 싸움이다. 현상으로 본다면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인 것이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에 대해 표현하기를 그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한다. 미터(M)로 바꾸자면 한 규빗이 손

[54] 창세기 15장 5-6절 (개역개정)

끝에서 팔꿈치까지이니 이것을 30cm로하면 2m정도이고 40cm이니 2m 90cm정도 된다. 현상으로 보아서는 사울의 갑옷도 맞지 않는 다윗에게 말도 안되는 싸움이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기초한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한다. 그 큰 거인 골리앗 앞에선 다윗은 삼상 17:45절에 보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리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라고 선포하며 나아간다.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보면 엘리사가 아람군대를 눈 멀게 한 사건이 나온다. 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 중에 있었다. 하지만 전략을 짤 때마다 이스라엘에게 들켜서 매 전쟁때마다 큰 곤욕을 치르게 되고 이 때 아람왕은 자기 수하중에 첩자가 있는지 확인해 보니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모든 일을 꿰뚫어보는 것을 알게 되고 엘리사를 죽이려 엘리사가 살고 있는 마을을 말과 병거를 에워싼다. 이것을 알게 된 엘리사의 사환은 겁이 나서 엘리사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만 엘리사는 아무 걱정하지 않는다. 믿음이 없어 이미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엘리사를 지키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환을 위해 기도하는 장면을 기억하는가? 보이는 현상으로 두려움에 가득찼던 사환은 엘리사의 기도 후 이제서야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것을 보

게 된다. 이 밖에도 믿음으로 살아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볼 수 있다.

분명히 시대는 변하고 코로나 19으로 인해 분명 어려운 상황은 사실이나 이러한 변화된 시대에도 설교자들이 놓지 않고 붙잡아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말씀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말씀한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우리는 심판대에서 우리가 한 행동에 대해 보응을 받는다고 말한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결국 우리에게 보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마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했을 때 그가 복의 근원이 되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 마치 다윗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행동으로 승리를 얻고, 엘리사가 보는 그 불병거처럼 말이다. 이것이 영적인 선견지명이다. 앞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불확실성만이 가장 확실하다'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지만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는 시대의 변화와 상관없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미디어 온라인예배가 되었든 현장예배가 되었든 그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있는 것처럼 목회하고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 루터는 밤이 되면 이렇게 기도하곤 했다고 한다.[55]

"하나님, 이게 제 세상입니까? 당신 세상입니까? 제 교회입니까? 당신 교회입니까?

---

[55] http://www.christiantoday.us/9274

당신 세상이고, 당신 교회라면 제발 당신이 돌보십시오. 저는 피곤해서 자야겠습니다.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루터와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자. 이것이 바로 설교자의 자세이고 선견지명의 믿음이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표현을 썼다. 특별히 우리가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싸움을 위해 필요함을 말씀한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허리띠를 매어야 하고, 의의 호심경으로써 의롭게 살아야 하며,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 매일 복음 중심의 삶을 살며,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아가며 구원받은 자로서의 세상과 구별된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지고 살아가야 우리가 보이지 않는 믿음을 견고히 가지고 설교자로 서야 한다.

Do not take easy way!! 목회자는 어려운 것을 택할 수 있어야 한다. 생각은 기도보다 쉽다. 왜냐하면 생각은 자기 중심적이고 기도는 하나님 중심적이기 때문이다. 생각은 내 경험 내 지식을 기반으로 하기에 쉽지만, 기도는 하나님께 묻는 일이기에 인내도 필요하고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게 응답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견지명의 믿음을 설교자는 이럴 때일수록 쉽게 할 수 있는 내 생각은 내려놓고 힘들지만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야 한다.

2.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심기일전(心機一轉)

우리 설교자들에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원숭이의 손에 바나나가 들려 있다. 그러나 그 바나나를 잡은 손이 작은 구멍의 통을 나올 수 없어 바나나 또한 꺼낼 수 없다. 이제 원숭이는 결정을 해야 한다. 눈에 확실히 보이지만 먹지도 못하는 바나나를 잡고 그냥 굶어 죽을 것인가? 아니면 아깝지만 그 바나나를 놓고 자유롭게 움직일 것인가? 이 질문은 오늘 코로나 19의 현실과 마주하고 있는 설교자인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이다. 오늘 우리가 새로운 자세를 고쳐 잡지 못하면 우리도 영이 죽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맡긴 한 영혼 한영혼들도 서서히 죽어가게 된다.

갈멜산의 전투를 기억하는가? 우유부단하게 서서 모호한 모습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장면이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56]

오늘날 설교자가 만나는 현실에서 신앙생활하며 우유부단한 것은 없는가? 신앙에서 머뭇거리며 망설이기만하고 결단력이 없이 살아가는 모습은 없을까? 설교자들

---

[56] 열왕기상 17장 21절 (개역개정)

은 확실하게 신앙안에서 주님의 닮은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포기하지 말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 우유부단하게 머뭇거리지 않고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만 지키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굳은 다짐'이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을 경험한 기독인인 목회자인 설교자에게 필요한 자세이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교수인 마이클 호튼(Michael S. Horton)은 그의 책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에서 교회안에 '성경적 가치와 그럴싸한 성경적 가치'가 서로 대립하며 이제는 '진짜복음-성경적 가치보다 그럴싸한 성경적 가치-가짜복음'이 교회에 팽배하므로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가 되었다고 맹렬히 비판하며 기독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대로 살겠다는 굳은 다짐을 못하는 원인으로는 제자의 삶을 결정하는 복음에 대한 확실한 고백과 결단이 없는 기독인의 유약함에 대해서 지적한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복음 없는 현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된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것이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가장 지배적인 모습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는 것이다. 제자도, 영적 훈련, 삶의 변혁, 문화 변혁, 관계, 결혼과 가정, 스트레스, 영적 은사, 물질의 은사, 급진적인 회심 경험등이 우리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

지만 육체를 입고 다시 오신 그리스도와는 별 관계가 없다. 이런 것들이 교회에 가득하다. 그리고 이것들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하신 사역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의 일을 다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연약한 믿음, 다시 말해 흔들리는 믿음을 선사할 것이다."[57]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그저 불편을 해소해주고, 이 세대에서 인류 전체에게 일반적인 질병들에서 우리를 구하신 것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죄와 죽음의 형벌에서 구하셨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조엘 오스틴이 보여준 정도의 하나님만 원한다. 이것은 온전한 복음이 아니다".[58]

마이클 호튼 교수는 이러한 것 들에서 기독인의 믿음이 흔들림을 지적한다.

카일 아이드먼의 책 "Not a fan"에서도 '신앙에서 결정장애'를 가진 우유부단한 성도의 모습을 지적한다."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삶이 조금 변하는 것은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삶을 뿌리째 뒤흔들기를 원하신다. 팬은 자신의 삶에 약간의 손질만을 할 생각이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완전한 수리를 말씀하신다. 팬은 약간의 조정을 생각하며 예수님께 오지만 예수님은 완전 분해 수리를 계획

---

[57] Michael S. Horton,『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김성웅 옮김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9), 39.

[58] 마이클 호튼,『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50.

하고 계신다. 팬은 몇 가지 장식을 달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완전 개조를 원하신다. 팬은 예수님의 가르침만을 원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기를 원하신다. 이러한 주님의 뜻을 그대로 시행하는 사람들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러나 팬은 즐기려만 한다.[59]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마이클 호튼과 카일 아이들먼의 책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온전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사명자'가 아닌 '소비자'의 심리를 가지고 복음을 접하기 때문임을 보게 된다. 소비자처럼 자신이 원하는 정보와 물건을 자유롭게 누리는 시대처럼 신앙에서도 자신에게 유리한/편한/그럴싸한 복음만 받아들이는/혹은 자신이 원하는 복음만 누리려 하면서 하나님과 자신의 욕심 사이에서 우유부단한 모습을 교회가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된다. 마이클 호튼의 책에서의 내용처럼 결과적으로 복음 없는 현대교회가 되는 위험성을 성도 뿐 아니라 목회자인 설교자도 가지고 있다.

기독 칼럼리스트 이병주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60] 완전자유경쟁 체제의 한국 기독교 시장에서, 평신도들은 소비자(消費者)가 되었고 개별교회와 목사님들은 소비자

---

[59] Kyle Idleman,『Not a Fan』, 정성묵 옮김 (서울: 두란노, 2012), 78.

[60] 이병주,『평신도의 발견』 (서울: 아포리아, 2015), 87.

의 선택을 받는 상품(商品)처럼 되었다. 이 상품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목사님의 설교와 교회의 건물이다. 시장은 포화되었고 공급은 과잉상태이다. 목사님들은 소비자인 평신도들이 '듣기 좋은 설교-위로의 설교'만을 원하므로 '정확한 설교-자기부인의 설교'를 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평신도들은 목사님들이 공급하는 설교와 말씀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은혜를 받다가 서서히 지루해 한다. 교회 시장이 성장할 때에는 공급자와 소비자가 모두 웃었는데, 시장이 정체하고 후퇴하면서 공급자가 먼저 힘들어하고 소비자도 답답해 한다. 근본적으로 교회의 예배와 설교가 자유경쟁체제를 통하여 '판매(販賣)되고 있다'는 사실이 심각한 문제들을 만들어낸다.'

비장한 마음으로 질문하고 싶다. 우리들의 교회에는 그리스도가 있는가? 우리 목회자는 판매자로 서있고 우리 성도님들은 소비자인가? 오늘날 설교자의 자세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가진 '심기일전'이 필요하다. 우유부단한 생각에서 돌아서 심기일전해야 한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61]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잘못된 신

---

[61] 열왕기상 18장 21절 (개역개정)

앙과 바른 신앙사이에게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런 자들에게 엘리야는 말한다. "머뭇거리지 말고 한곳에 택하라"

3.말과 행함의 일치-언행일치(言行一致)

우리 설교자들에게는 말과 행실의 일치의 자세가 필요하다. 나폴레옹[62]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임금은 임금답게,신하는 신하 답게,아버지는 아버지 답게,아들은 아들 답게 처신하라.''~답게'라는 말은 참으로 어려운 말이지만, '~답게'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대통령 답게 나라를 잘 이끌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은 지도자 답게 노블레스 오블리주 (noblesse oblige)[63]를 실천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면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정

---

[62] 나폴레옹 보나파르트(프랑스어: Napoléon Bonaparte, 코르시카어: Nabulione di Buonaparte, 이탈리아어: Napoleone Bonaparte, 독일어: Napoleon Bonaparte 1769년 8월 15일 ~ 1821년 5월 5일)는 프랑스 제1공화국의 군인이자 1804년부터 1814년, 1815년까지 프랑스 제1제국의 황제였다.

[63] 노블레스 오블리주(프랑스어: noblesse oblige, IPA: /nɔblɛs ɔbliʒ/, 영어: nobility obliges)란 프랑스어로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를 의미한다. 보통 부와 권력, 명성은 사회에 대한 책임과 함께 해야 한다는 의미로 쓰인다. 즉,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사회지도층에게 사회에 대한 책임이나 국민의 의무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단어이다. 하지만 이 말은 사회지도층들이 국민의 의무를 실천하지 않는 문제를 비판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의로움의 상징인 변호사, 판사, 검사가 사회정의에 힘을 써야 하지만 오히려 자신들이 공부한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권력을 사용하고,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 온갖 편법을 동원하여 약자들이 평생 얻지 못할 기회를 아주 쉽게 가로채며 약자에게 고통주는 일을 하기도 한다. 정치인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삶이 아니라 돈을 버는 수단으로 자신의 지위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미디어를 통해 접한다. 이러한 상황을 보는 우리 설교자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언행일치(言行一致)가 필요하다. 이것은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라는 의미이다. 우리는 설교자이기전에 기독인이다. 백과사전에서 '기독인'의 의미를 찾아보면, 기독교인(基督教人) 또는 그리스도인(영어: Christian)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다시 말해 성경에서 메시아로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라고 정의 되어 진다.

칼빈의 기독교강요(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제3권에서는 '참된 신자(True believer)'에 대해 말한다.[64] "오직 참된 신자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친절하시고 자비우신 아버지라고 굳게 확신함으로써 그의 관대하심에 근거하여 친히 모든 일들을 약속하

[64]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60), Book3: Chapter 2. Believer.

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다. 자신을 향한 신적인 긍휼의 약속들에 의지하면서 의심없이 구원을 기대하는 사람이다."

오늘 우리 설교자들에게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다니엘서 1장의 다니엘의 언행일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65] 다니엘은 우유부단하지 않았다. 그는 그가 가진 신앙으로 부당함에 저항한다.

오스기니스의 '저항'이라는 책을 보면 오늘날 우리는 '신앙의 변질을 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신앙의 박해보다 현대성(Modernity)의 유혹이 더 위협적인 시대에 놓여 있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오스기니스는 이렇게 설명한다. "현대교회는 '발전된 현대성'에게 속고 있다. 그 현대성은 발전과 과학적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게 한다. 발전된 현대성이 유혹하는 반기독교적 도전 앞에 세상과 쉽게 타협하고 신앙의 본질을 저버리고 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절체절명의 중대한 시기에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교회는 다니지만 참 삶은 없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무종교인'으로 커밍아웃하고 있다. 교회가 직면한 가장 거대한 도

[65] 다니엘 1장 8절 (개역개정)

전'인 것이다. 저자는 현대성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짚지 않는다. 다만 '현대성은 사상이 문제보다 훨씬 광범위하다.'현대성에 세 가지 왜곡이 일어났다. 하나는 '권위의 지배를 받는 입장에서 선호의 입장으로', 두 번째는 '종교가 통합이 아닌 분리의 입장에 서도록 부추기는 현대 세계의 경향성', 세 번째는 '초자연적인 영역에서 세속적 영영'으로 이동한다."[66]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저항해야 함을 오스기니스는 그의 책을 통해 이러한 현장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한다. "세상을 등지고 살수 없다. 지혜롭게 참여해야겠지만, 세상을 정확하게 분별하여 주의 진리와 부르심을 부정하는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저항이다." "신앙을 지키는 것은 '세상의 모든 도전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시대의 징조를 읽어 영을 시험하며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 이 '저항'이라는 책에서 오스기니스는 현대성의 유혹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가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사람'이 되라고 도전을 준다. 현대성이 결코 조종 불가능한 사람, 뇌물이 통하지 않는 사람, 타협하지 않고 저항하는 기독인이 되어 거침없이 돌진해오는 미래의 도전과 시련 앞에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며 더 이상

[66] Os Guiness,『저항』, 김진선 옮김 (서울: 토기장이.2017), 81.

피할 수 없는 시대에 사명을 품고, 신앙의 변절을 요구하는 유혹과 위협에 당당히 맞서 저항하라고 주문한다.

설교자 된 우리는 다니엘을 주목해야 한다. 다니엘에게는 분명한 어려움이 있어다. 이것은 신앙과 세상의 싸움이었다. 달콤한 유혹이 그에게 있었다. 그러나 그는 신앙의 견고함을 가지고 저항하였다. 그의 말과 행동은 일치하였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천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그간 만난 신앙의 도전에 다니엘은 그의 삶을 던져 저항하였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67] 오늘날 우리 설교자에게 성경적 설교를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자세는 바로 말과 행동의 일치이다.

4. 한 알의 씨앗이 되어-사필즉생(死必卽生)

우리 설교자들에게 한 알의 씨앗이 되어 설교하는 자세 가 필요하다. '사필즉생'이라는 고사성어의 한단어로 정확하게 하나님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설교자에게 무

[67] 다니엘 1장 9절 (개역개정)

엇을 말씀하시는 줄 알 수 있다. 이 고사성어가 가진 의미는 우리 설교자들에게 매우 필요한 자세이다. 필생즉사 사필즉생(必生卽死 死必卽生)이라는 말의 뜻은 '싸움에 있어 죽고자 하면 반드시 살고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는다' 라는 뜻으로 이순신 장군이 명량대첩에서 한말로 알려져 있다. 한 알의 씨앗이 되겠다는 각오가 성경적 설교를 하여야 하는 설교자에게 필요하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68]

구약성경을 보면 위와 같은 말씀을 실제로 삶에서 적용한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는 볼 수 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

---

[68] 마태복음 16장 24-25절 (개역개정)

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69] 세친구는 믿음의 고백의 결정체를 보여준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설교자들이 성경적 목회를 하기 위해 필히 갖추어야 하는 자세이다. 하나님만 따라가겠다!라는 믿음의 신실한 고백을 설교자인 우리가 먼저 할 때 성경적 목회를 할 수 있다. '사필즉생'의 자세"그리 아니하실지라도"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 이러한 자세들과 함께 목회의 방향성에도 변화가 필요 하다.

---

[69] 다니엘 3장 13-17절 (개역개정)

제 2 절 성경적 목회위한 방향의 변화

마이클 호튼 교수는 텍사스 휴스턴의 레이크 우드 교회의 조엘 오스틴(Joel Osteen)이 지향하는 교회공동체에 만연된 성장위주의 '형통복음'에 대해서 비판한다. "오스틴이 전파하는 건강과 부의 복음은 고난을 다루지 않는다. 그의 교(전파)는 불균형적이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왕국이 제공하는 세속적 신학이다. 오스틴이 자신의 책에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가장 좋은 소식은, 오스틴이 그의 책 "잘 되는 나"에서 설정한 일곱 단계(잘되는 마음, 잘되는 생각, 잘되는 습관, 잘되는 관계, 잘되는 태도, 잘되는 결단, 잘되는 실천)를 따랐을 때 좋은 주차 자리를 얻었고, 식당에서 좋은 자리를 잡았으며, 예기치도 않게 비행기에서 일등석으로 승급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그저 불편을 해소해주고, 이 세대에서 인류 전체에게 일반적인 질병들에서 우리를 구하신 것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죄와 죽음의 형벌에서 구하셨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조엘 오스틴이 보여준 정도의 하나님만 원한다. 이것은 온전한 복음이 아니다."[70] 성경적 목회의 방향은 이제

[70] Michael S. Horton,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김성웅 옮김 (서울:부흥과 개혁사.2009), 125.

성장이 아닌 성숙의 단계로 노력해야 한다.

1.성장에서 성숙으로

오늘날 교회들은 성장주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사회에 영향을 끼쳐왔다. 교회 즉 목회의 목표는 성장을 위한 것이 였기에 교회조직은 성장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것으로 성경적 목회-구약과 신약 그리고 초대교회와 개혁주의 교회들이 생명을 걸고 파수하였던 복음이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제 성경적 목회를 지향하는 설교자인 우리는 성장위주의 패러다임에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를 양육하는 성숙에 목적을 두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성장을 위한 목회와 교회구조로는 성경적 목회를 할 수도 없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도 없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다. 모든 종교들은 각자가 주장하는 교리를 가지고 있다. 간단히 정리하면, 어떤 종교를 믿는 천국,극락에 갈 수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종교다원주의(religious pluralism)로 이러한 사상인 기독인들도 혼란하게 만든다. 이런 상황에서 성장에 치우친 교회의 사역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할 수 없다.

성경은 분명히 가르친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이다.[71]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된다.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로마서를 쓴 사도바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음을 1-11장에서 교리적 논조로 강조한다. 그리고 로마서 12장을 시작하자마자 "그러므로"라고 앞에서 언급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말씀에서 의인이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그것은 교회 건물을 크게 지어야 한다거나 양적인 성장이 아니었고 성도의 변화였다. 그것은 성도의 성숙이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72]

사도바울은 명령이 아닌 권면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다. 함의된 뜻을 찾아보자면

---

[71]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11-12, 개역개정)

[72] 로마서 12장 1-2절 (개역개정)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대해 명확히 알고 인식하여서 변화되었다면 "변화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 될 수 없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면서 그 변화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는 이치에 맞는 논리적 전개인 것이다.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변화된 자들이 해야 하는 일을 말씀한다. "너희 몸을 드리라"

존스토트(John Stott) 목사는 제자도라는 그의 책에서 이부분을 이렇게 설명한다.

"몸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발이 주님의 길을 걷는 것이고, 우리의 입술은 진리를 말하며, 우리의 혀는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의 손은 세상을 돕고, 우리의 팔은 외롬과 사랑받지 못하는 자들을 감싸고, 우리의 귀는 약한자의 부르짖음을 듣고, 우리의 눈은 살아 계신 주님을 보는 것이다."[73]

성숙은 우리의 몸을 드려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성숙은 우리의 몸을 희생하여 예수님을 닮아 이웃을 섬기는 것이다. 오늘 교회공동체와 목회자인 설교자에게 이 자세가 요구된다. 이것은 코로나시대 이후의 교회가 성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

[73] John Stott, 『제자도』, 정옥배 옮김 (서울:IVP.2010), 86-90.

2.성급함에서 인내로

2019년 12월부터 진행된 코로나 19으로 우리는 매우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 여전히 우리는 이 코로나19의 바이러스로 인해 사회활동에서 여러가지 제약을 경험하며 '코로나 블루'를 경험한다. 코로나19과 우울감(blue)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로 불안-분노-우울-스트레스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 성급함이 아닌 인내가 우리의 목회에 필요하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을 때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신 장면을 성경에서 보여주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응원'이였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보좌에 일어나셔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신다. 설교자인 우리는 목회의 방향을 성급이 아니라 인내로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힘쓸 때 우리 주님이 스데반을 바라보았던 모습으로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를 주목하며 응원해 주심을 기억해야 한다. 그럼 어떻게 성급에서 인내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는 방법으로는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훈련이 많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B.B. 워필드의 견해를 소개하고자 한다. 워필드는 자신의 "소논문 선집"(Selected Shorter Writings)에 수록된 다섯 편의 글에서 목회자의 경건에 대해 다룬

다. 특별히 "신학생들의 경건생활"의 내용은 오늘날 목회자로 설교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

"목회는 '지식을 요구하는 '직업이기 대문에 학식이 없는 사람은 다른 어떤 은사를 지녔든 간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목회자에게 학식이 꼭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은 아닙니다. "가르치기를 잘하며"(디모데후서2:24). 목회자는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가르침에는 지식이 포함됩니다. 무언가를 가르치는 이는 자신이 가르치는 내용을 잘 알아야 야 합니다. 하지만 가르치기를 잘한다고 좋은 목회자라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때론 10시간동안 책과 씨름하는 것보다 10분간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해 더욱 참되고 심오하며 효력있는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학문을 등하시 하고 경건을 중요하게 여기는 말은 아닙니다. 학문과 경건은 그런 대립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많은 관심을 두고 훈련하고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건을 헤치는 것에 경계해야 하며 경건한 삶을 더 견고히 하고 그 삶의 영역을 넓혀주는 방편들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

을 온전히 보는 인내의 방법입니다." [74]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설교하며 성급한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인내를 배울 수 있는 훈련이 되는 것이다.

초대교회에 핍박이 있을 때 순교의 각오를 가졌던 신앙의 선배들을 떠올려 볼 때 그들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경건의 훈련과 엄청난 인내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았다.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지만, 그 때 순교자들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음으로 죽음을 택하였다. 이 때 복음이 멈추었는가? 그렇지 않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므로 일어난 일이다. 오늘 우리에게 성급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오늘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과 코로나 19속에서 교회가 잃어버리고 있는 수많은 것들의 회복을 위해 설교자의 자세와 방향을 수정한 후 우리는 성경적 목회와 설교를 하기 위해 다음의 5가지를 마음에 새겨야 함을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

[74] Benjamin B. *Warfield, Selected Shorter Writings, Jon E. Meerter, 2 vols*. (Phillipsburg, NJ: Presbyterian and Reformed, 1970-1973), 411.

제 5장

성경적 목회와 설교의 올바른 방향

성경적 목회를 한다는 것은 성경적 설교를 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설교자가 성경 말씀을 바르게 풀어 전하지 못할 때 설교자는 권위를 잃게 되어 있다. 아마도 코로나 19에서 교회가 잃어버린 것 중의 첫번째는 목회자의 권위일 것이다. 설교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반복되며 성도들의 마음을 요동하게 하는 세상의 것에 우리의 설교는 너무 약화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성경은 오늘을 살아가는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주요 도구인 것이다. 이러한 신적권위를 가지고 우리는 설교해야 한다. 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는 것이다.[75]

성경적 설교는 설교자에게 권위와 능력을 준다.[76] 성경적 설교를 하기 위해 본 필자가 제안하는 성경적 목회와 설교에서 필요한 5가지 Solas를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한다. 토마스 슈라이너(Thomas Schreiner)는 "오직 성경"을 통해 만나는 "오직 그리스

---

[75] Haddon W. Robinson,『설교의 원리와 실제』, 정장복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5),14-16.

[76] M.F.Unger,『강해설교의 기술』, 보이스 사 편집부 옮김 (서울: 보이스사, 1998), 24.

도"가 신학의 중심이자 설교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77]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은혜"를 함께 생각하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있는 복이나 유익처럼 여기지 않는다. 또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믿음"을 관련 지어 숙고함으로써 믿음 자체가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중요성을 상기하게 된다.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만이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고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된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행동하게 되는 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이다.[78] 이것이 성경적 설교와 목회의 중요한 이유이다.

블랙우드 (Blackwood) 는 성경적 설교 장점을 이렇게 말했다[79]. 첫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발견할 수 있다. 둘째,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지식 안에서 성장하도록 도와준다. 셋째, 성경말씀을 생활속에서 실천하게 해준다. 넷째, 은혜안에서 성장 할 수 있다. 다섯째, 그리스도의 윤리의식을 향상시킨다. 여섯째, 그리

---

[77] Tomas R. Schreier, "*Justification by Works and Sola Fied*," The Southern Baptist Journal of Theology 19/4(2015):39-58.

[78]Schreiner, "Justification by Works and Sola Fide," 47.

[79] Andrew W. Blackwood,『현대인을 위해 강해설교』, 양낙흥 옮김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4) 24-21.

스도인의 신앙체험을 강화하여 준다.

본 연구는 성경적 목회를 가능케 하는 방법으로 지금 현재 교회가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5Solas를 우리가 설교에 늘 사용해야 함을 제안하는 바이다. 총신대학교 문병호 교수는 개혁주의 신학은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의 모토로 집약된다고 말한다 그는 '오직 성경'안에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모토가 다 들어가 있다고 말하므로 개혁주의 성경관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80]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에 의해 1517년 10월에 독일에서 시작되었다. 종교개혁의 핵심은 "성경으로 돌아가자!"였다. 지금으로부터 500년전 마틴 루터는 기존의 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기를 원했다.[81] 16세기 카톨릭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전해지지 못할 때 종교개혁의 근간을 이룬 것이 "5Sola"이다. 오직성경(Sola Scriptura) 오직은혜(Sola Gratia) 오직 믿음(Sola Fide)

---

[80] 문병호, "*개혁주의란 무엇인가?: 신학과 신앙의 요체,*" (개혁 논총), 27권(2013), 61.

[81] The Reformation began in Germany in October 1517 by Martin Luther. The essence of the Reformation was "Let's go back to the Bible!" Let's see the Bible correctly!About 500 years ago from now. Martin Luther saw what the church was wrong and wanted to return to the essence of the church. Back to the Bible.

오직예수(Solus Christus) 오직 하나님께 영광(Soli Deo Gloria). 오늘 이것이 성경적 설교와 목회에 필요함을 명시하고자 한다. 이 모든 것으로 우리는 예수그리스도를 설교해야 하고 그분께 답을 얻어야 한다.

제 1 절 신앙의 본질인 오직 성경(Sola Scriptura)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을 때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다. 영생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82]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영생을 얻었다면, 우리는 오늘 지금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되어야 한다. 이것이 영생을 가진 자의 삶이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대 기

[82] 요한복음 17장 3절 (개역개정)

독인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많은 문제들이 있게 됨을 보게 된다. 영생을 얻었지만, 그 영생의 의미를 몰라 세상과 갈등하고 성도 간의 갈등이 있음을 보게 된다. 오늘 우리에게 모든 문제의 답인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명확하게 가르쳐 준다. 올바르게 성경을 보아야 한다. 설교자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의 본질인 오직성경에 근거하여 전해야 한다.

성경에 대한 관점이 세가지가 있다. The Bible contains the Word of God (자유주의 - liberal theology, liberal Christianity)[83] -기독교 해석의 권위를 성경보다 이성에 두며, 초자연적인 것을 배제하고, 기독교를 현실적·윤리적인 것으로 파악하여 낙천적 세계관을 가진 것 따라서 성경의 어떤 부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른 부분은 인간의 말이라 주장한다. The Bible becomes the Word of God(신정통주의- neo-orthodoxy)[84]-신현대주의라고 불리는데, 성경전체가 오류가 있는 인간의 말이지만, 그러나 인간의 말을 읽을

---

[83] 1) The Bible contains the Word of God (Liberal Theology, Liberal Christianity).
Placing greater authority on logic than on the Bible when interpreting the Scripture. Excluding the supernatural. Treating the Bible as practical, ethical guide and advocating selective passages as words of God while claiming others as words of men.

[84] 2) The Bible becomes the Word of God (Neo-orthodoxy).
Also called the New Modernism. The entire Bible is words of men, full of errors. However, when people read these words of men, God works through the Bible such that those who read will comprehend God's truths.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그들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주장한다. The Bible is the Word of God(개혁주의,복음주의)[85]-역사적 칼빈주의자들은 또한 우리의 입장이 3번째 관점입니다. 개개의 단어를 포함하여 성경전체가 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작성되었음을 고백한다. 이것이 바로 "오직 성경"의 관점이다. 오늘 이것이 성경적 설교를 하고자 하는 설교자에게 필요하다.

우리가 '성경만을 믿는다'고 말할 때 우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당시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카톨릭이 성경을 최종권위에 두지 않고 다른 곳에 최종권위를 두는 것에 대한 불쾌함을 가지고 있었다.

종교개혁자들은 초대 교회에서 발견된 성경을 최종권위를 두는 관점으로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했다. 그들은 성경 자체가 이것을 가르쳤다고 믿었다. 종교개혁주의자들은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유일한 원천이고, 유일하게 하나님께 영감을 받은, 오류가 없으며, 최종적이고 권위 있는 신앙과 실천 규범으로 이해되어

---

[85] 3) The Bible is the Word of God (Reformist, Gospel-centered).
This was the belief held by the Calvinists, as well as our own belief. The entire Bible, as well as every single word contained within it, IS the word of God, and it is written by the divine inspiration from God. This is the perspective of Sola Scriptura.

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이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딤후 3:16)의 말씀을 신앙으로 고백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설교자는 이러한 고백으로 설교를 작성하고 목회하여야 한다.

제 2 절 위기를 뚫는 오직 그리스도 (Solus Christus)의 능력

고든콘웰신학교(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의 조직신학교수였던 데이비드 웰스(David Wells)의 "신학실종(No place for Truth)", 웨스트민스터 신학교(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의 마이클 호튼(Michael Horton)의 "능력종교(Power Religion)",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Grace Community Church)의 존 맥아더(John F. MacAtthur)목사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Ashamed of the Gospel)"의 책들을 보면 공통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바로 복음의 상실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상실이고 십자가의 상실이다. 이 책들 에서는 공통적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할 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적인 방식으로 교회를 그저 부유한 지상 왕국으로 세우려고 함을 이 책들 에서는 지

적한다.

필라델피아 십장로교회 (Tenth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였던 제임스 몽고메리(James Montgomery Boice) 목사의 책 “개혁주의 서론(Whatever Happened to The Gospel of Grace)”에서 복음의 상실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복음의 상실로 교회에는 세가지 슬픈 결과가 나타났다.[86] 첫째,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겨났다. 둘째, 교회는 세상의 도덕적 가치와 견해를 수용하고 있다. 교회 에게 세상과 구분될 만한 점이 없었으며 결국 그저 자신들이 속한 문화를 희미하게 반영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셋째,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에 기초하기보다는 당시의 대세를 따르고 있다.[87]

본 논문을 작성하며 "복음의 상실"로 일어나는 슬픈 현상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오늘 목회자들인 우리는 성경적 목회와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반듯이 "오직 예수

---

[86] James Montgomery Boice, 『개혁주의 서론』, 김수미 역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0), 24-25.

[87] Loss of the gospel brought three sad consequences to churches. First, it produced a state of uncertainty about what to believe. Second, the liberal churches were embracing the outlook and moral values of the world. Since there was nothing to make them distinct, they ended up being merely a pale reflection of the culture in which they were functioning. Third, they made decisions based not on the teachings of the Bible but as a response to the prevailing opinions of the time.

그리스도"는 "오직 십자가의 사랑"을 설교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오직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구절이다.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53장 5-6절)

"아들을 낳으리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21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29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심이라" (고린도 후서 5:21절)

"한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히브리서 9장 27-

28절)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한계시록 1:5-6절)

위의 성경 구절 들에서 예수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 그럼 이런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여야만 하는가?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그가 죽어야만 했는가? 이것은 성경적 설교자로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질문이 된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서 오늘 답을 얻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면 복음 상실의 현장에 우리는 성경적 설교를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것에 대한 답변이 명확해야 성경적 설교로 우리는 목회할 수 있다.

캔터베리 대주교를 지냈던 안셀무스(Anselm of Canterbury)는 이 질문: 왜 그리스도여야만 하는가? 에 대해 이렇게 답을 말한다. 안셀무스는 인간의 죄에 대한 정의를 먼저 말한다. "인간의 죄란 하나님의 명예를 무한히 훼손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었다. 만물의 질서 가운데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가 마땅히 가져

야 할 명예를 빼앗 었다. 누구든 이것에 대해 하나님이 우리를 간단히 용서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아직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생각해 본적이 없는 것이다. 안셀무스는 곧이어 자신의 이런 논지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께 범죄한 장본인이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하는 존재도 인간이어야 함을 말하며,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며 (죄가 없는)인간인 존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성취됨을 설명한다.[88]

마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 또한 이렇게 설명한다. "죄 가운데 태어나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는 모두 우리의 모든 것과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저주 받아 영원한 진노와 지옥 외에는 획득한 것이 없으며, 이런 곤경에서 빠져 나갈 길도, 도움도 없으므로…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인간, 즉 예수 그리스도, 신인 (神人)이 우리를 대신

[88] James Montgomery Boice, *What happened to the Gospel of Grace?* (Wheaton, Crossway books, 2010),122-123. "Why only Jesus"" in the following way: Anselm began with a definition of sin, which he explained as an infinite offense by man against God's honor. Being an inexcusable disobedience of God's known will, sin insults him. Nothing is less tolerable in the order of things, than for the creature to take away the honor due to the Creator. If anyone imagines that God can simply forgive us, that person has "not yet considered what a heavy weight sin is (nondum considersati quanti ponderis sit peccatum)". Anselm also said that salvation must be achieved by man, for man is the one who has wronged God and who therefore must make the wrong right. Given this situation, salvation can only be achieved by one who is both God and (sinless) man, that is, by Jesus Christ.

해야 했고, 자신의 고통과 죽음을 통해 죗값을 치르고 만족을 이해하셨다."[89]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90]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것이라"[91]

우리가 알듯이 죄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분리시켰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복귀시키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그는 친히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 질 수 있다. 그리고 고전1장 18절을 볼 때 좀 더 명확하게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

---

[89] *What happened to the Gospel of Grace?*,125. Martin Luther explained it is way.
"Since all of us, born in sin and God's enemies, have earned nothing but eternal wrath and hell so that everything we are and can do is damned, and there is no help or way of getting out of this predicament…therefore, another man had to step into our place, namely, Jesus Christ, God and man, and had to render satisfaction and make payment for sin through his suffering and death."

[90] 마가복음 10장 45절 (개역개정)

[91] 베드로전서1장 18-19절 (개역개정)

가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영어성경으로 볼 때 '십자가의 도'를 'The message of the cross'라 하는 것으로 오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 분쟁은 서로 파가 나누어져 누구에 속하였느냐 하는 문제였다. 그 때 사도 바울은 고전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한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싸우지 말고 온전히 한 마음으로 합하여야 하는데 그 이유는 고린도 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자신의 제자들을 모으라고 는 것이 아니라 그 분께서 친히 이루신 일에 대해 메시지를 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모으라고 바울을 보낸 것이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멸망하기로 굳게 결심한 자들에게 어리석은 것이 되겠지만 구원의 길에 들어선 우리에게는 완벽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기에 이 경험을 가진 우리가 분열되어지면 안 된다는 것임을 강조한다.

이것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목회자들이 전해야 하는 성경적 설교에 꼭 필요한 내용이다. 고흐의 ‘불꺼진 예배당’(오베르 쉬르 우아즈 성당,1890 oil on canvas)이라는 제목의 그림을 보았는가? ‘불꺼진 예배당’ 이것은 전기불이 꺼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차갑고 메마른 교회를 상징한다. 이 그림은 오늘 목회자들에게 도전이 되어야 한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의 큰 은혜보다 유대인처럼 자기 세계에 갇혀 자기 경험에 의지하여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가? 기적과 표적만을 구하는 헬라인과 같은 설교자들이 있는가? 그렇다면, 이런 설교자의 모습으로는 절대로 예배당의 불이 켜질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런 상태로는 빛이신 주님을 절대로 드러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차갑고 메마른 자들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다. 이런 상태로 교회와 목회자들이 존재한다면, 예배당의 불을 켜질 수 없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오고 싶어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오직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여 이 십자가의 도를 잘못 해석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자신의 경험세계로만 가지고 들어와서 복음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더 이상 교회는 소망이 없다. 이것은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한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92]

고린도 전서 1장 24절[93]의 "부름 받은자..."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창12장, 모세를 부르신 출3장, 기드온을 부르신 사사기 6장, 사무엘을 부르신 삼상3장, 예레미야를 부르신 예레미야 1장을 보면 모두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자신의 자랑을 모두 뒤로 하고 하나님을 따랐고 온전히 순종했다.

오늘 설교자들에게 있어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그 주님의 간곡한 부르심에 우리의 경험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우선이 됨을 고백으로 살아가야 한다. 제임스 몽고메리 (James Montgomery Boice)의 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만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92] 고전 1장 23-24절 (개역개정)

[93]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개역개정)

기독교의 진정한 핵심이라면, 십자가 없는 복음은 있을 없다. 크리스마스 자체는 복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도 복음이 아니다, 복음은 그저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거나 적합한 삶의 방식을 드러내기 위해 그리스도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거나 심지어 우리의 큰원수인 죽음이 정복되어졌다는 사실이 아니다. 복음은 죄가 해결되어졌고,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로 형벌을 겪으셨으며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담대하게 천국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다."[94] 이것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성경적 설교자이고 목회이다.

제 3 절 인간 한계를 넘어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Sola Gratia)

교회는 다니기는 하지만, 성경을 읽기는 하지만, 그리스도를 찾기는 하지만 '오직'이라는 신앙의 고백이 바탕이 아니라 '그냥, 그냥, 그냥'이라는 단어가 신앙의 삶을 지배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본다.

'오직 성경'이 아니라 '그냥 성경', '오직 믿음'이 아니라 '그냥 믿음', '오직 은혜'가

[94] James Montgomery Boice,『개혁주의 서론』, 김수미 역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0), 138.

아니라 '그냥 은혜','오직 예수'가 아니라 '그냥 예수'가 지금 우리의 삶을지배한다. "오직"이라는 신앙의 고백은 지금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오직'이라는 고백이 있을 때 지금 우리의 신앙의 나약하고 타락한 모습에서 회복되어 지금 교회들이 잃어버리는 것들을 회복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어이다. 성경적 설교와 목회를 하는 것은 오직 은혜(Sola Gratia), 하나님의 은혜 만이 드러나야 한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95]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이다. 이 말씀의 의미를 설교자는 기억해야 한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Total Depravity)했고, 이 상태로 인간이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불가항력적 은혜(Irresistible Grace)"를 받았다고 말한다. 이 부분에 대해 존 파이퍼(John Piper)는 이렇게 설명한다.[96] "불가항력적 은혜는 하나님의 우리의 행위를 보시거나, 우리의 의지에 어긋나게 억지로 회개하게 하거나 믿게 하거나 예수님을 따르게 만드신다는 뜻이 아니다. 만일 이것이 행위를 기반으로 하거나 억지로

95 에베소서 2장 8-9절 (개역개정)

96 John Stephen Piper,『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Five points)』(서울: 두란노), 39.

라면 어불성설이다.[97] 바울이 말했듯이 누구든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십자가의 도 (The message go the cross)를 더 이상 미련한 것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긴다. 십자가를 참으로 값지고 한없이 소중하게 여겨 자발적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된다.[98] 십자가에 저항하던 마음이 무너진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들의 영적 흑암을 뚫고 들어가 십자가를 지혜와 능력으로 보게 해 주셨기 때문이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99]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는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지 못해 '따분한 은혜'로 바라보는 자들이 있음을 지적한다. "인간의 전적 타락을 전혀 알지 못하고 여전히 따분한 은혜 (그냥은혜)로 살아간다.[100]

---

[97] This is how John Piper explained it in his book The Five Points: "Irresistible grace never implies that God forces us to repent or believe or follow Jesus against our will. That would even be a contradiction in terms because believing and repenting and following are always willing, or they are hypocrisy.

[98] Paul says that everyone who is called in this sense no longer regards the cross as foolishness, but regards the cross as the power of God. They are not coming to Christ under coercion. They are acting freely from what they truly value as infinitely precious.

[99] That is what has happened to them. Their resistance to the cross has been overcome because the call of God broke through their spiritual blindness and granted them to see it as wisdom and power. This is what we mean by irresistible grace."

[100] James Montgomery Boice,『개혁주의 서론』, 김수미 역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0), 149.

이 부분에 대해 제임스 패커(J.I.Packer)의 이렇게 말한다. '은혜의 교리가 말하는 네 가지의 커다란 진리, 죄의 죄성, 하나님의 심판, 인간의 영적 무능력, 하나님의 주권적 자유를 이해하고 '가슴속에 느끼려는 데'실패했기 때문이다. "[101]

제임스 몽고메리 목사는 이부분을 계속 이렇게 설명한다. "사람들은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가볍게 다룸으로써 변명하는 것이 바로 슬프고 해로운 죄의 특성이다. 죄는 심각하다. 예를 들어, 다윗은 시편 51 편에서 애절한 죄의 참회시를 쓴다. 다윗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움을 표현하기 위해 1 절에서 "은혜","인자,"긍휼"이라는 세개의 단어를 사용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그리고]2 절에서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첫 단어를 '위반, 반항 (페샤 פֶּשַׁע,rebellion)'을 사용하여 자신의 죄가 하나님께 반역함이였음을 말한다. 두번째로 사용한 단어는 '불의(아온 עָוֹן, wrongdoing, unrighteousness)'로 이것은 우리의 내적 타락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사용한 단어는 '죄(하타 חָטָא, fal short of~)'로

---

[101] 제임스 패커, 『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정옥배 (서울: IVP), 48.
James I. Parker observed in his book Knowing God that this "amazing grace" has, for many people, become "boring grace". Packer suggested it is a failure to understand and "feel in one's heart" four great truths that the doctrine of grace presupposes: 1) the sinfulness of sin; 2) God's judgment; 3) man's spiritual inability; and 4) God's sovereign freedom.

하나님의 고귀함에 벗어난 상태를 말한다" 바울은 이러한 죄의 상태를 로마서 3 장 10-11 절에 이렇게 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102]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의 글과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는 명확히 알게 된다. 우리의 죄는 심각하며 누구도 해결 할 수 없는 죄악이다. 그래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악(위반,반항,불의,죄)이 우리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해결되었기에 "오직 은혜" 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102] James Montgomery Boice, *What happened to the Gospel of Grace?* (Wheaton, Crossway books, 2010),147. James Montgomery Boice elaborated this point in the following manner:
"It is a sad, harmful, and evil characteristic of sin not to recognize how serious it is and to excuse it by treating it lightly. The consequence of sin is serious. (Have mercy on me, O God, according to your unfailing love; according to your great compassion blot out my transgressions.)
For example, after he was brought to acknowledge his sin, David wrote an affecting confession of sin in Psalm 51. Have mercy on me, O God, according to your unfailing love; according to your great compassion blot out my transgressions.
In verse 1, David used three words to express the immeasurable wonder of God's grace: 'mercy', 'unfailing love', and 'compassion'.
In verse 2, he used three corresponding words to express the sinfulness of his sin. The first word is 'פֶּשַׁע peshah', meaning 'transgression', 'crossing a forbidden boundary', or 'rebellion'. The use of this word shows David regarded his sin as an act of rebellion against God.
The second word is 'עָוֹן, hawon', meaning 'iniquity' or 'perversion'. It refers to what we call 'original sin' or the 'innate depravity' our natures.
The third word he used is 'חָטָא, chattath', meaning 'sin', 'falling short', or 'missing the mark'. We miss God's high mark of perfection, falling short of it in the same way an arrow might fall short of a target.

설교자의 설교속에 녹아 나야 하고 그렇게 목회할 때 성경적 목회와 설교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제 4 절 인간의 최선을 넘어 오직 믿음(Sola Fide)의 능력으로

>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103]

오늘 본인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자 하다. 믿음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 중생(regeneration)하므로 하나님과 그의 구원을 가장 확실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믿음은 중생(regeneration)으로 시작한다. 중생은 성령의 내적 증거(testimonium Spiritus Sancti internum; the internal witness of the Holy Spirit)에 의해 선포된 복음의 내용을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절대적 진리로 받아들이는 단계를 말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성경이 선포하고 증거하는 '복음 곧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믿음의 내용을 이해하는 일은 중생 된

---

[103] 로마서 1장 17절 (개역개정)

이성(ratio renata: regenerated reason)이 하게 된다. 중생된 이성(Regenerated reason)은 계시 곧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한다. 이로인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 권위에 의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이 때 '믿음이 있다'고 말한다.

찰스 스펄전(Charles Haddon Spurgeon) 목사는 이렇게 설명한다. "믿음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곧 지식과 동의와 신뢰이다. 사람은 먼저 어떤 사실에 대해 알아야 밀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들어야 하는 일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한다. 두 번째는 동의(belief)이다. 이제 생각은 그 지식이 진실하다고 동의하는 단계로 나아간다. 영혼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며 그분은 진실한 마음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사실이라는데 동의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신뢰이다. 우리 자신을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우리의 영혼을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다. 신뢰가 없으면 구원을 얻는 믿음이 아닌 것이다. 청교도들은 믿음을 종종 '기대 누움'이라는 말로 설명했다. 지금 우리가 의자에 몸을 기댄 것처럼 늘 그리스도께 기대면 된다. 자신을 그리스도께 던져 그분 안에서 쉬며 그분께 맡기라.

이것이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가진 것이다."[104]

연세대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시는 김학철 교수 믿음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105] "사람들은 유물론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물질이 다가 아니다'라고 말씀한다. 만약 물질이 전부라면,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 우리는 알고리즘의 일부이고, 탄소 결합물, 우리가 먹는 것은 소화작용 대사작용, 삶은 번식행동일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는 모든 행동과 상황에 의미를 둔다. 예를 들어, 찬양을 들을 때 사람들은 울기도 한다. 사실 그 소리를 환원해 보면 그것은 음파의 진동이다. 근데 사람들은 그 음파의 진동의 소리를 들을 때 아름다움을 느끼고 하나님을 느낀다. 빈센트 반고흐는 자기 동생 테호한테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할 수 없다'고 편지를 쓴다. 그러나 화학자에게는 램프란트 그림은 물감 덩어리이고, 염료이고, 어떤 것은 풀에서 어떤 것은 광석에서 왔고, 그것을 덕지덕지 바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어떤 관람객에게는 그림은 사진 찍는 장소이고, 딜러에게는 돈을 버는 수단이다. 그러나 반고흐에게 그 그림은

---

[104] Charles Haddon Spurgeon,『믿음, 자신있게 대답하라(What is faith?)』(서울: 생명의 말씀사), 130.

[105] https://youtu.be/9MaRc4RsZKs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것이었다. 기독교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물질을 다른 차원으로 보게 하는 것이다. 소리가 음파의 진동이고, 그림은 물질 덩어리이지만, 그것들을 배후에 이른바 초월적인 것을 느끼게 하는 그것 이것은 정신 착란도 아니고 과잉해석도 아니다. 믿음은 멀리 있지 않다. 행17:27"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의 선물(신학적으로 성령의 내적증거)로 믿음을 받고, 때로는 길을 지나가다 공중 나는 새를 보며, 마태복음 6장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가 생각나며, '아 그런가?'하며 믿어지는 것이다."

믿음에 대해 신학적으로, 목회학적으로 그리고 물질세계를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 설명했다. 성경적 설교자로 목회하는 것은 명확한 믿음을 소유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1515년 교황 레오10세는 독일에서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면죄부는 로마의 성 베드로성당 건설을 위해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면죄부를 구입하는 돈을 상자속으로 던져 넣을 때에 그 돈이 짤랑하고 소리를 내는 순간 천국에 갈 수 없었던 부모나 가

족의 영혼이 즉각 구원을 받는다고 선전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면죄부가 마구 팔리게 되고 성 베드로 성당이 웅장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구원은 성경 어디에도 나와있지도 않고 실제 구원에 이를 수도 없는 거짓된 방법이었다. 죄에 대한 회개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면죄부를 돈을 주고 구매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일이 감히 자행되고 있었다. 이에 루터는 "오직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다고 성경의 말씀을 교회에 강력하게 전하였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로마서 1장 17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사도행전 20장 24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

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빌립보서 3장 7-8절)

사도바울은 그 자신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을 누구보다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106]고 고백한다. 우리는 바울과 같은 자격 없는 자였으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하나님의 의' 를 갖게 되었다. 목회자로 설교자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설교하고 목회할 때 이것이 성경적 목회와 설교가 되는 것이다.

제 5 절 우리의 삶의 목적인 오직 하나님께 영광(Soli Deo Gloria)을

Soli Deo gloria는 다른 4개의 Solas와 정확히 평행하지 않는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다른 4개의 Solas의 시작이자 끝이기 때문이다. 성령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성경에 영감을 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아버지 우편에 다시 오르게 되셨다. 칭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

[106] 디모데 전서 1장 16절(개역개정)

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따라서 Soli Deo gloria가 모든 신앙의 중심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Confession of Faith)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As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explains: "God hath all life, glory, goodness, blessedness, in and of Himself." He is the God of glory (Acts 7:2).
He also manifests His glory in the works of creation and redemption, most significantly in the person and work of Jesus Christ, the Lord of glory (1 Cor. 2:8).[107]

성도인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선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설교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성경적 설교이자 목회이다.

---

[107] Dr. Keith Mathison, The Five Solas;(https://reformationbiblecollege.org/blog/the-five-solas)

제 6장

결론

작금의 시대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그 변화속에서 잘못 대응하는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을 우리는 잃고 있다. 성경적 목회와 설교를 이제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한다. 급격한 사회의 변화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 이 땅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우리 사역자들은 기도하며 연구해야 할 것이다. 본 보고자는 이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성경적 목회와 설교로 종교개혁시대의 핵심 가치였던 5 Solas의 개념과 그 가치를 가진 설교자의 자세를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사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진리이다. 성장위주의 초점에서 이제는 성경적 가치에 무게중심을 두고 설교하고 목회할 때만이 작금의 어려운 환경에서 진정한 교회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게 됨을 오늘을 살아가는 목회자이자 설교자들이 기억하길 소망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108]

[108] 이사야 43장 19절 (개역개정)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전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새 일을 행한다' 말씀하신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이전일은 출애굽 전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일이었다. 이 중요한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신다. 그것은 새일 행하실 주님은 더 좋은 것을 늘 준비해주시기 때문이다. 주님은 "보라!!"라는 말은 분명 내가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 보라!!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이전에 어려움속에서 주님이 도와 주셨던 일들은 계속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해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교회를 그리고 부르심에 성실하게 응답하는 목회자이자 설교자들을 여전히 도우신다는 약속의 말씀이다.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분명 현대시대는 여러 내외부적 위기의 내용으로 목회와 설교하기 매우 어려운 시대이다. 그러나 성경속의 예수님과 바울 그리고 종교개혁시대의 믿음의 선배들에게서 볼 수 있듯이 성경적 목회자로 살기를 다짐하며 실천할 때 여전히 교회는 소망이 있고 우리의 설교는 세상을 도울 수 있다. 한 설교자는 설교는 죽어가는 영혼에게 마지막으로 쏟는 생명수라 한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성경적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경적 설교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부터가 중요하다. 다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에서 우리를 통해 하실 메시지를 "오직 은혜","오직 믿음","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고 전하는 자세를 가질 때 다시 하나님은 교회를 이 땅의 소망으로 사용하실 것이라 확신하며 본 논문을 연구하였다.

지금 부터가 중요하다. 다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에서 우리를 통해 하실 메시지를 "오직 은혜","오직 믿음","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고 전하는 자세를 가질 때 다시 하나님은 교회를 이 땅의 소망으로 사용하실 것이라 확신하며 이것이 본논문의 핵심이다.

설교자는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삶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과 관점을 가지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위해 설교하고 목회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려 함을 언급하면 몇 가지 성경적 목회와 설교를 하기 위한 제언으로 본 논문을 마치려 한다.

제언-다시 성경으로(5 Solas)

1)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목회자- Sola scriptura: "Scripture alone"

2) 성경말씀 그대로 전하려 힘쓰는 목회자- Solo Christo: "Christ alone"

3) 기도로 준비하는 목회자- Sola gratia: "grace alone"

4) 진실함으로 설교하는 목회자- Sola fide: "faith alone"

5) 설교준비에 모든 힘을 쓰는 목회자- Soli Deo gloria: "to the glory of God alone

BIBLIOGRAPHY

한글 단행본

김남준. 그리스도인이 빛으로 산다는 것.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2.

_______. 존 오웬의 신학.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9.

김성수. 21세기 혁신적 리더십. 서울: 탑북스, 2015.

김세윤. 크리스천 리더십의 모델로서의 바울. 목회와 신학(2000 년 8 월): 78-79.

김영일. 목회리더십 신학과 실제. 서울: 열린출판사, 2005.

김형국. 교회를 꿈꾼다. 서울: 포이에마, 2012.

박용규. 한국교회를 깨운 복음주의 운동. 서울: 두란노, 1998.

박윤선. 성경신학. 서울: 영음사, 2005.

박영호. 청교도 실천신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2.

배규한. 미래사회학. 서울: 사회비평사, 1995.

송인규. 성경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01.

안병만. 존 스토트 설교의 원리와 방법, 서울: 프리셉트, 2001.

이문장. 앤드류 월즈 등 6인 공저, 기독교의 미래, 서울: 청림출판, 2006.

이성희. 미래사회와 미래교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6.

_______. 미래목회 대예언. 서울: 규장문화사, 1998.

이승진. 설교를 위한 성경해석. 서울: CLC, 2008.

이승구. 21세기 개혁신학의 방향. 서울: SFC, 2005.

이종성. 교회론.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89.

이규원. 목회를 말하다. 서울: 두란노, 2019.

옥성호. 내가 꿈꾸는 교회 2.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8.

정주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인가? 서울 : 생명의 양식, 2018.

최윤식. 한국교회 미래지도.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3.

최인식. {멀티미디어와 새로운 교회}. 서울:기독교서회, 1996.

번역서

A.W Tozer. 말씀이 힘이다. 이용복 역.서울: 규장,2015.

Alvin J. Lingren. 교회개발론, 박근원역.서울:대한기독교출판사, 1977.

Alister McGrath. 기독교 변증. 전의우 역. 서울:국제제자훈련원, 2014.

________________. 복음 주의와 기독교의 미래. 서울:IVP, 2018

________________. 복음주의와 기독교적 지성. 김선일 역.서울: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2003.

Bruce Wrighsman. 교회의 의미와 사명, 김득중역. 서울:컨콜디아사, 1981.

Dik Aiberson. 팀 목회. 권혁재 역. 서울:진흥.1999.

Donald Guthrie, 신약신학, 정원태, 김근수공역. 서울:기독교문서선교회.1995.

D.A Carson외. 복음이 핵심이다. 최요한 역. 서울:아가페북스.2014.

Donald R. Sunukjian, 성경적 설교의 초대, 최경락 역, 서울:CLC. 2009.

Dallas Willard. 하나님의 임재. 윤종석 역, 서울: IVP, 2016.

Eugene H. Peterson. 다윗 현실에 뿌리받은 영성. 이종태 역. 서울: IVP. 2019.

Gregory A. Boyd. 복음주의와 신학논쟁, 박찬호 역. 서울:CLC. 2019.

Carl F. George. 성장하는 미래교회 메타교회. 김원주. 명성훈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7,

Kyle Idleman. 거짓신들의 전쟁. 배응준 역. 서울: 규장. 2013.

James Sayer.기독교세계관과 현대사상. 김헌수 역. 서울:IVP. 2007.

Jonathan Edwards. 대표 설교선집. 백금산 역. 서울:부흥과 개혁사. 2005.

John Stott.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옥배 역. 서울: IVP, 2007.

__________. 현대 교회와 설교. 정성구 역. 서울: IVP, 2010.

__________. 온전한 그리스도인, 한화룡 역. 서울: IVP, 2014.

__________. 현대 사회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정옥배 역. 서울: IVP, 2011.

__________. 기독교의 기본진리. 황을호 역. 서울:생명의 말씀사, 2005.

John Piper. 칭의 교리를 사수하라, 장호익 역, 서울:부흥과 개혁사, 2007.

__________.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윤종석 역. 서울:두란노, 2015.

John MacArthur, 예배. 유정희 역. 서울:아가페북스, 2014.

Joel Beeke, 언약 자손으로 양육하라. 김진선 역. 서울:성서유니온, 2015.

Jermiah Burroughs.예배의 타겟을 복음에 맞추라. 서창원 역. 서울: 진리의 깃발, 2002.

Graeme Goldsworth. 복음과 하나님의 계획. 김영철 역. 서울:성서유니온, 2007.

Howard Snyder, 그리스도의 공동체, 김영국역. 서울:생명의 말씀사, 1987.

H. VanTil, The Calvinistic Conception of Culture (New York: Baker Book House, 1992)

Timothy Keller. 설교. 채경락 역. 서울:두란노, 2018.

______________.정의란 무엇인가. 최종훈 역. 서울:두란노, 2019.

______________. 인생질문. 윤종석 역. 서울:두란노, 2019.

______________. 왕의 십자가. 정성묵 역. 서울:두란노, 2015.

Thom Rainer, 좋은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최예자. 서울:프리셉트, 2013.

Thomas Wright. 시대가 묻고 성경이 답하다. 안종희 역. 서울: IVP, 2016.

______________.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 양혜원 역. 서울: IVP, 2017.

Haddon W. Rovinson. 강해설교. 박영호 역. 서울:CLC, 2007.

Haddon W. Rovinson 외, 성경적 설교와 설교자. 이승진외 역. 서울:두란노, 2006.

______________.성경적인 설교준비와 전달, 전인우 외 역. 서울:두란노,2006.

Bryan Chapel.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엄성옥 역. 서울: 은성, 2016.

David Martyn Lloyd-Jones. 설교와 설교자. 정근두 역. 서울:복있는 사람, 2012.

논문

문상기. "성경적 설교로서의 강해설교" 한국설교학회, 2009.

박태현. 청중의 설교학: 효과적 설교 청취의 기술-청교도를 중심으로", 한국개혁신학회. 2016.

박완철. "현대 설교학에서 말씀과 경험의 통합: 비교연구", 한국복음주의신학회, 2006.

신성욱.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강단의 위기와 설교학적 대안 -청중의 요구사항(Felt-need)과 기독교의 필수진리(Real Need)를 중심으로",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원, 2013.

이승진. "복음과 상황의 설교학적인 상관관계: 성경의 내러티브 본문에 대한 설교의 적용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복음주의 신학회, 2011.

정창균. "성경적 성경 인물설교를 위한 설교학적 고찰과 제안" 한국설교학회, 2011

전형준. "성경적 상담과 설교 : 성경적 상담과 설교의 통합방안" 기독교문서선교회, 2011

한광희. "내러티브본문에 대한 성경적설교 연구" 총신 신대원, 2015.

홍종학. "성경적 설교의 원리" 대한신학대학원, 1998.

설교자료(Sermons)

▷ Sermon Illustrations for Preachers, Pastors and Teachers : http://www.sedona.net/~budman/contents.html

▷ Worship & Spirituality Site : http://www.golden.net/worship/index.html

▷ Sermon from Duke Chapel : http://www.chapel.duke.edu/scripts/sermons/

▷ Worship That Works/Selected Sermons : http://www.dfms.org/worship-that-works/

▷ Edwards, Jonathan: Sinners in the Hands of an Angry God : http://www.iclnet.org/pub/resources/text/history/edwards.sinners.txt

▷ Spurgeon, Charles Haddon. The Metropolitan Tabernacle Pulpit) : http://www.iclnet.org/pub/resources/text/history/spurgeon/spurgeon-home.html

▷ Times Square Church Pulpit Series, David Wilkerson : http://www.iclnet.org/pub/resources/text/Times.Square.Church/wilkerson-home.html

VITA

Full name: Daekyung Lee

Date and place of birth: July 5, 1979 in South Korea, Seoul

Education/Degrees: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Doctor of Ministry, May 2022)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Master of Arts in Theological Studies, May 2017)

Years of D. Min. Work: 2018-2022
Expected Graduation: May 2022